



정성우
JUNG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가족 그리고 사랑

GLOBAL & INSIGHT

06



공군IN

18



- 06 Pioneers up above 존 보이드
- 08 World-Wide Vision Alive and kicking
- 12 Global AF The Baghdad Strikes
- 16 Leadership+ 당신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나요?



- 18 경청노트 오월을 닮은 하늘빛 사랑
- 20 기획특집 공군, 가족 그리고 사랑
- 28 Photo Sketch 한쪽 날개엔 꿈을, 다른 한쪽 날개엔 사랑을...
- 34 포토프레임@AF 신임 참모총장 이·취임식
- 38 AIR FORCE MONTHLY 2012. 05. NEWS
- 40 생각하는 그림 장점을 발견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COVER STORY



공군에게 힘을 주는 가족
표지촬영(앞, 뒤) 김재기 | 프리랜서 사진사

CULTURE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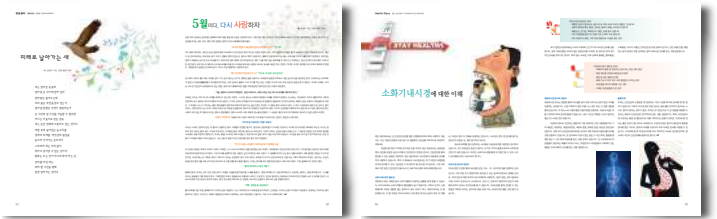
44



- 44 Hollywood English 형거 게임
- 46 Art in Everyday 긍정의 힘, YES
- 48 Air-Supply TV를 꺼주셔도 좋습니다.
- 50 Preview 5월의 문화행사

OPINION

52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3월호를 읽고서
- 52 창공 글터 미래로 날아가는 새
5월이다, 다시 사랑하자
- 54 Health Diary 소화기내시경에 대한 이해
- 56 책마을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가족

MONTHLY MAGAZINE

VOL. 407. 2012. 05

※ 작가의 개인사정으로 이번 호 〈인생은 아름다워〉는 한 회 쉽니다.

발행일자 2012년 5월 1일(통권 제407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3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바로 **[우유]**다. 아이들에게는 성장에 필요하고, 아
가씨에게는 피부미용에 필요하고, 노인들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우유! 월간 「공군」도 공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
한 우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기고> '대
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는 한'이라는 글을 재밌게 읽
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저 멋있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보니 조종사들도 고된 훈련과 위협을 무릅쓰
는 평범한 아버지자 아들,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 대구 달서구, 박지현

02 월간 「공군」은 **[예술]**이다. 공군의 힘찬 모습과 멋진 공군이 되
기 위한 최고의 비법이 담겨 있어 완벽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
대! 그러니 월간 「공군」은 내게 찬탄을 이끌어내는 예술이다! 이
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Rookies of 공군'을 흥미롭게 읽었습
니다. 신세대 장병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공군의 루키들을 보
니, 앞으로의 공군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희망과 예너
지로 가득 차 있는 첫 출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 경남 거제시, 박정민

월간 「공군」은 **[음악]**이다. 음악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듯, 월
간 「공군」도 일과에 지친 공군장병을 위로해주니까! 언제나 기다
리는 잡지입니다. 항상 표지·디자인부터 개성과 재기가 넘치거
든요. 공군의 인트라넷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기획하면 공군 장병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이번 호에서는 <Photo Sketch>의 'Red Flag, 대한민국
공군의 긍지를 휘날리다'라는 코너가 인상 깊었습니다. 현대 공
군전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거든요~!
- 강원 원주시, 이재원

04 월간 「공군」은 **[인생]**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고, 몸과 마
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월간 「공군」을 읽으며
감동을 받고 합니다. 저는 그 감동을 <World-Wide Vision>의
'Up All Night'에서 찾았는데요. 심야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미 공군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몽클해졌습니다. 또한 <생각
하는 그림>의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라는 글을 읽고,
나 역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알차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월간 「공군」! 앞으로 더 응원하고 지
켜보겠습니다. - 경남 양산시, 박철인

월간 「공군」은 **[에너지]**다. 읽다보면 스스로에게 에너지가 생깁
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공군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번 호에서 <기획특집> '공군호
에 탑승하기'라는 글에 관심이 가더군요. 각자의 위치에서 공
군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은 물론, 공군에 오고 싶어 하는 이들
에게 방향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독자들에게 더욱 잘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 제주 제주시, 윤문수

06 월간 「공군」은 **[공부]**다? 매달 「공군」지를 받으면 아들과 '전
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들은 월간 「공군」이 우체통에 있으면
학교에 가서 보고 오거든요. 제게 말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통 화제도 많이 생기
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더욱 알차고 좋은 월간
「공군」 부탁드립니다. ^^ - 경남 거창군, 최동술



Global & Insight

Alive and kicking
* World-Wide Vision

꽃 피이드
* Pioneers up above

The Baghdad Strikes
* Global AF

다치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나?
* Leadership+



존 보이드(John Boyd)

1927.1.23 ~ 1997.3.9.

OODA Loop 이론을 만든 항공전략사상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기계도 영토도 아니다.
인간이 전쟁을 수행하며,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존 보이드는 1927년 펜실베이니아주 에리(Erie)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육군에 입대, 항공단에서 근무했는데 특이하게도 1945~'47년에는 일본에서 수영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보이드는 아이오와대학을 졸업한 1951년 7월부터 1975년 8월 31일까지 25년간 공군에서 근무했다.

보이드는 1952년 넬리스 비행기지에서 F-86 조종훈련을 받고 6·25전쟁에 파견됐다. 1953년 3월, 수원기지에 도착한 보이드는 F-86으로 30회 전투출격을 했다. 1953년 6월 30일, 보이드는 영국 조종사와 편대를 이루어 압록강 30마일 북방에서 미그기를 격추시켰는데, 압록강 남방 30마일 비행금지구역 운영규칙상 이를 공인받지 못했다. 종전과 함께 보이드는 편대장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대대 최고 조종사로 선정됐으며, 1950년 11월에는 대대 교관조종사로 승격되었다.



F-86

종전 후, 그는 다시 넬리스기지 항공전술개발본부 공중전투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40초 보이드'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공중전투기량은 아무리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적기와

싸워도 이기는데 40초면 충분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보이드는 공개적으로 40달러를 상금으로 내걸었지만, 6년간 공중모의전투에서 보이드를 이겨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통상 상대방에게 꼬리를 물려주고 공중전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동체, 날개, 수평꼬리날개를 순간 스피드브레이크로 사용해 항공기 속도를 400Knots에서 불과 수초 만에 150Knots로 급감시키는 기술을 사용했다. 보이드의 신기의 가까운 이 기술은 적기의 꼬리를 다시 물어, 40초 만에 전세를 역전시키곤 했다.

1960년대 초 보이드는 민간수학자 토마스 크리스티와 공동으로 공중전투기동인 에너지기동(Energy-Maneuverability: E-M)이론을 함께 개발했다. 보이드는 이 E-M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수학계산을 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의 계산법은 전투기설계의 세계적인 공식이 되었다. 당시 미 공군은 F-15 개발에 이론적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E-M이론을 개발한 존 보이드를 펜타곤으로 불러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펜타곤에 온 보이드는 에너지기동 계산을 완료해, F-15 개발에 큰 공헌을 세운다.¹⁾

그 이후, 보이드는 전투조종사로서 연구개발단에 근무 중이던 에버레스트 리치오니 대령과 체계분석단의 민간인 통계사 피에르 스프레이와 함께 '전투기 마피아'라는 소그룹을 결성한다. '전투기 마피아'는 경전투기 개발프로젝트인

'LFX' (Light Fighter eXperimental)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F-16과 F/A-18 개발로 이어진다. 그리고 보이드는 경전투기 A-10 선더볼트 II를 개발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그것이 공대지 전투기로 운용되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1975년 대령으로 예편한 보이드는 펜타곤의 분석평가국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계속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보이드는 일을 그만두고, 플로리다로 이사했지만 국방장관인 체니가 그를 다시 펜타곤으로 불러들였다. 1981년 보이드는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체니에게 '분쟁 양상'에 관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체니는 이를 눈여겨봤던 것이다. 그 인연으로 보이드는 '사막의 폭풍작전' 기획에도 참여, 걸프전의 '레프트 후크'를 설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당시 해병대사령관 찰스 크룰럭(Charles Kruluk) 장군은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의 공격에 사기 및 지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승리는 보이드가 기획한 대로 실행됐는데, 그는 마치 자신이 현장의 비행단 또는 기동사단의 지휘관인 양 정확하게 작전을 설계했다"고 보이드의 해안을 칭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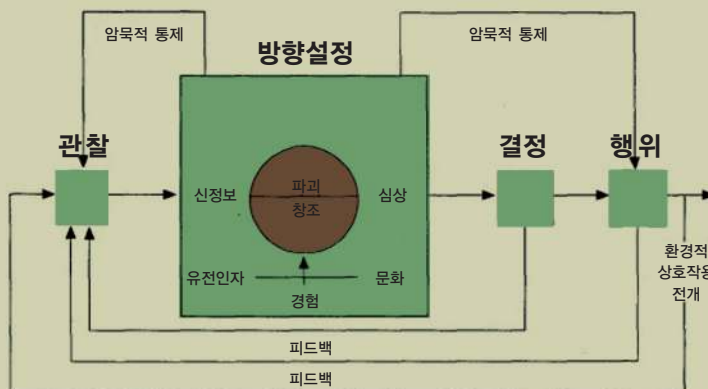
보이드의 전략사상의 핵심은 'OODA Loop'라 불리는 의사결정 순환과정 모델이다.

O : 관찰(Observation)

O : 인식(Orientation)

D : 결심(Decision)

A : 실행(Action)



OODA Loop

보이드는 OODA Loop를 통한 교전 당사자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전쟁의 핵심으로 파악했다. 즉, 자신의 OODA Loop를 빠른 속도로 순환시키면, 적은 상대적으로 느린 OODA Loop 때문에 대응행동에 연이어 실패하게 되고, 대응행동 실패의 누적과 OODA Loop 속도의 격차로 인해 공황상태(전락마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이클이 돌아가는 동안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임무를 취소하면 된다. 보이드는 이 이론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이드는 주식회사나 정부와 같은 대형 조직에는 작전적, 전술적, 전략적 수준의 OODA Loop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분권화된 조직이라고 봤는데, 각 부서의 OODA Loop를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드의 OODA Loop는 군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정치, 경영, 스포츠, 심지어 생존을 위한 모든 조직행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보이드는 군사전략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없다. 대신에 그는 수백 장의 슬라이드로 작성된 공중전 교과서 '승리와 실패에 관한 논쟁(Discourse on Winning & Losing)'과 1976년에 작성한 '파괴와 창조(Destruction & Creation)'라는 논문을 썼다. '파괴와 창조'에서 보이드는 OODA Loop를 이용한 전쟁이론을 주창했다.

보이드는 전쟁을 사기전(Moral War), 정신전(Mental War), 물리전(Physical War)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사기전은 적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동맹을 와해시켜 적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며, 정신전은 적의 정보를 교란시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스스로 궤멸되게 만드는 것이다. 물리전은 무기장비, 병력, 군수자산과 같은 물리적 자산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한다.

또한 보이드는 1970-80년대 국방개혁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이 운동에는 피에르 스프레이, 프랭클린 척 스피니, 윌리엄 린드, 국방부차관보를 역임한 토마스 크리스티, 상원의원 뉴트 길리치와 게리 하트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이 주창한 국방개혁의 요체는 미국의 국방 분야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고비용이라는 것이다. 군 개혁운동은 이를 명확히 진단하고, 장교들의 안일한 태도, 소모전 개념의 지나친 의존도 등을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다른 개혁가인 제임스 버튼은 브래들리 장갑차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육군과 논쟁을 했고, 제임스 팔로우스는 '근육질의 초강대국'과 '국가방위'라는 책을 통하여 전략발전에 기여했다. 오늘날 젊은 개혁가들도 보이드의 이론들을 기초로 전략, 경영 및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보이드는 걸프전이 종료된 후 의회에 나가 국방개혁에 관한 실재를 증언하기도 했다.

1980년 1월, 보이드는 해병대전쟁대학에서 그의 '분쟁 양상'을 브리핑한다. 이 때 교관이던 마이클 와이라이와를 통해, 트레이너 장군을 만나게 된다. 보이드는 트레이너 대장의 지원 하에 해병대전쟁대학의 커리큘럼을 바꿀 수 있었다. 트레이너 장군은 와이라이에게 해병대를 위한 새로운 전술매뉴얼을 만들라고 요청했고, 보이드는 와이라이와 린드, 그리고 젊은 장교 몇 명과 함께 '해병대 기동전'을 작성하였다.

퇴직 후, 보이드는 시골 고등학교 보조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낸다. 그리고 1997년 3월 20일, 70세의 나이로 플로리다에서 영면하여 알링톤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AF**

1) 실제 F-15는 보이드가 제안했던 것보다 더 크고 무겁게 개발됐다. 하지만 보이드의 계산으로 개발과정에서 엄청난 재원이 절감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live and kicking

Air Force's youngest B-52 Stratofortress turns 50 this year
탄생 50주년을 맞는 미 공군의 B-52 Stratofortress 폭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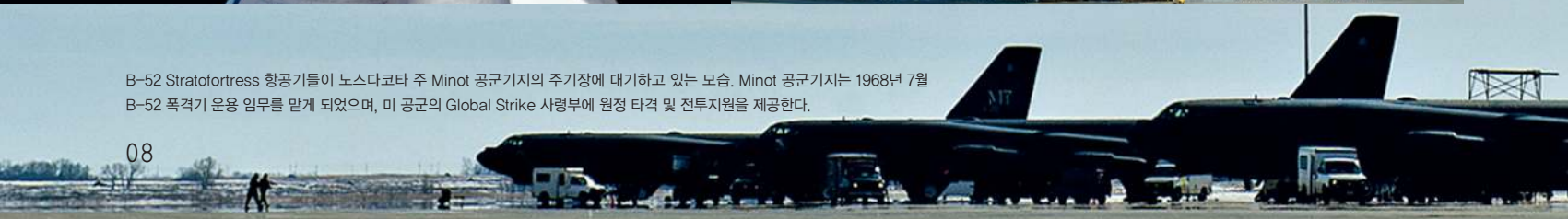


채드 데이비스 대위가 노스다코타 주의 Minot 공군기지에서, B-52 Stratofortress Tail No. 1040호기에 탑승 전 승무원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기 정비사 및 무장 기술 요원들이 주기장에서, Tail No. 1040호기를 정비하고 있다. 본 항공기는 공군의 50년 역사를 가진 B-52 Stratofortress 중 가장 최신 기종이다. Minot 공군기지

B-52 Stratofortress 항공기들이 노스다코타 주 Minot 공군기지의 주기장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Minot 공군기지는 1968년 7월 B-52 폭격기 운용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미 공군의 Global Strike 사령부에 원정 타격 및 전투지원을 제공한다.



미 공군의 B-52 Stratofortress 폭격기의 마지막 기종인 ‘젊은’ 항공기 1040호기(Tail number 1040)가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게 된다. 물론, ‘젊은’이라는 수식어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식어는 냉전이 한창일 때 개발된 다른 장거리 중폭격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다는 뜻이다.

테일 넘버 1040호기는 미 공군이 보유한 총 744기의 B-52 폭격기 중 마지막으로 제조된 기종이며, 1962년 10월에 미 공군에 인도됐다.

“이 항공기가 B-52 폭격기 중 마지막 기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5폭격항공단의 군사 기록연구관인 로버트 미첼(Robert Michel) 씨가 말했다. “당시에는 아마 100년은커녕 약 20년간 운용 후, 퇴역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현재, 이 1040호기를 비롯한 미 공군의 다른 B-52 폭격기들은 앞으로 약 30년 정도, 그러니까 2040년까지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B-52 폭격기가 50년 이상 장수를 유지해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B-52 폭격기의 다재다능한 성능을 봤을 때, 아마 이 항공기를 대체할 폭격기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미첼 씨가 전했다.

“그 이유는 B-52가 핵 억제 및 재래식 작전에 활용될 뿐 아니라, 핵 무장과 재래식 폭탄, 크루즈 순항 미사일, 항공기뢰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고, 고고도 및 저고도 비행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스위스 군용나이프와 같은 폭격기라 할 수 있죠.”

정비사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B-52 폭격기는 오늘날의 미 공군의 신규 및 타 기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 B-52 폭격기들은 수십 년에 걸쳐 훌륭한 정비사들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제5항공정비대대의 전임 정비관인 에릭 토마스 하사가 말했다. “B-52의 역사는 정비사들뿐만 아니라, 기체를 지원하는 모든 요원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공장에서 제조된 후, 50년간 운용된 항공기는 많지 않습니다. B-52 폭격기가 다른 항공기에 비해 그다지 수려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도로 숙련된 정비사라 하더라도, B-52 폭격기를 매일 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놀랍게도 1040호기는 Minot 공군기지에서 가장 활발히 비행을 하는 항공

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B-52 폭격기에 비해 정비소요가 적다고 한다. 토마스 하사는 “평균적으로 Minot 공군기지의 다른 B-52 항공기들은 17,000에서 18,000시간을 비행하는 반면, 1040호기는 21,000시간 이상을 비행한다.”고 전했다.

이들 항공기가 Minot 기지로 처음 인도되었을 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엔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B-52H 폭격기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첼 씨가 말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커다란 알루미늄 덩어리에 테일 넘버를 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B-52폭격기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됐죠.”

“H형 기종에서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체 자체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형되어 옛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월에 따른 기계적 그리고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 B-52폭격기는 그 임무도 점차 변화되어 왔다.

“항공기가 처음 인도되었을 때는 전략적 억제력, 즉 핵무기 임무를 위한 용도로만 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무장 및 재래식 폭격 작전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사 기록관인 미첼 씨가 전했다.

B-52H 폭격기는 그동안 5개 이상의 미군 주요작전에 참가해왔다: 사막의 폭격작전(Desert Strike, 1996년 이라크 북부), 사막의 여우작전(Desert Fox, 1998년 이라크), NATO의 연합전력 작전(Allied Force, 1998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자유작전(Iraqi Freedom)과 아프간에서의 영구 자유작전(Enduring Freedom, 2001년~현재) 등이다.

오늘날 B-52를 비행하는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처음 공군에서 이 항공기를 운용했던 선배 조종사들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제5폭격항공단의 B-52 항법조종사(navigator) 킴 브라운 대위는 어렸을 때, 부친의 동료로부터 처음 이 폭격기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

“저희 아버님의 친한 친구 분이 B-52 폭격기의 항법조종사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B-52 항공기에 대한 여러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공군에 지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B-52항공기를 조종하게 될 것이라는 건 더욱더 상상도 못했었죠. 생각해보면, 당시에 B-52 항공기가 어땠는지를 조종사로부터 듣는 것이 참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노스다코타 주 Minot 공군기지. 대대 정비 행거에 그려진 제5폭격항공단의 로고인 "Warbird"의 모습. 제5폭격항공단은 1949년 7월 개설되었으며, 미 공군 Global Strike 사령부 예하 두 개의 B-52H Stratofortress 항공단 중 하나로 임무가 변경되었다.



타일러 데브포트 일병(왼쪽)이 B-52 Stratofortress 항공기 랜딩기어 타이어 압력을 체크하는 모습. 크리스토퍼 월드맨 일병이 기술 명령서의 절차를 따라 점검을 하고 있다. 노스다코타 주의 Minot 공군기지

브라운 대위는 아버지 친구 분과 아직도 E-mail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친구 두 조종사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B-52 항공기가 여러 세대를 거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식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 친구 분께서는 제게 ‘당시 직접 조종할 때는 컴퓨터 장치하나 없이 모든 것을 손으로 조작해야 했다’ 고 우스갯소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대위가 전했다.

B-52 폭격기를 운용하는 비행단에서 전해지는 말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다. 바로 Stratofortress 폭격기의 마지막 조종사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

“제 아이 또는 손주들이 미래에도 똑같은 항공기를 조종한다고 상상하니,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대위가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1040호기를 비롯한 나머지 B-52 폭격기는 모두 퇴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미 공군의 가장 상징적인 항공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미첼 씨는 내다봤다.

“B-52는 전통이 살아있는 폭격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B-52 항공기란 말이죠.” 미첼 씨가 말했다. “억제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B-52가 모두 퇴역하여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때가 오면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B-52 없는 공군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걱정은 미래로 제쳐두기로 하자. 바로 지금, Minot 기지의 1040호기와 다른 B-52항공기들은 단지 또 한 번의 생일을 기념하며, 미 공군 항공력의 상징으로서 아직 건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AF**

B-52 Stratofortress 폭격기 조종사인 크리스 더프 대위가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비행 전 제거”라는 안전판을 제거 후 Tail No. 1040호기를 도보 점검하는 모습

무장탑재 담당인 데니엘 릭 일병이 B-52 Stratofortress 1040호기 폭격기의 날개 밑의 grease panel을 열고 중저장 어댑터 빔을 설치하는 모습

The Baghdad Strikes

이라크 자유작전 ①

2003년 3월 19일,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10시 15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시작으로 제2차 걸프전인 이라크 자유작전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하지만 이 연설이 있기 전, 이라크 자유작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지상전의 주역인 미 육군 제3보병사단과 미 해병대 제1해병사단의 공병들은 순조로운 진격을 위해,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 국경에 설치해 놓은 장애물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이와 함께 공중에서는 사담 후세인과 그의 일족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 작전은 이라크 자유작전 기간 내내 우리들의 귓속에 맴돌았던 단어인 "Target of Opportunity", 즉 가능성 있는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최초의 작전이었다.



01



02

이라크에 침투한 CIA의 스파이들

이라크 자유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 7월 중순경 CIA, 즉 미국중앙정보국의 공작 팀이 터키를 경유하여 이라크 북부산악 지대로 잠입했다. 이들의 목적은 전쟁개시에 앞서 사담 후세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내의 쿠르드족을 규합하고, 이라크 내에 CIA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공작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기구인, 공화국 수비대와 사담 페다인 그리고 이라크 정보부 및 특별 보안기구 내에 스파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쟁개시일이 임박해질 무렵 스파이들은 후세인의 위치를 실시간에 가까운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01 CIA의 공작 팀은 후세인의 위치를 실시간에 가까운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 사진 출처: 미 공군

02 이라크 자유 작전이 시작되기 전 CIA의 공작 팀이 터키를 경유하여 이라크 북부산악지대로 잠입했다. | 사진 출처: 미 육군



03

03 미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이번 기회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사진 출처: 미 백악관

04 3월 19일 사담 후세인의 거처에 대한 결정적 첩보가 땡글리로 날아들었다. | 사진 출처: 미 중앙정보국

도라농장의 상상치 않은 움직임

3월 19일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10시 15분경, CIA의 본부가 위치한 땡글리에서는 이라크에서 보고된 후세인 관련첩보를 확인하던 중, 사담 후세인의 은신처로 예상되는 바그다드 남동쪽 티그리스강변에 위치한 도라농장에 상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정찰위성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도라농장의 아자나무들 아래 36대의 차량을 주차한 것이다. 이어, 도라농장에 사담 후세인의 경호원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저장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오후 12시 30분, 결정적 첩보가 땡글리로 날아들었다. 사담 후세인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시간 전 도라농장을 떠났고, 저녁에는 도라농장으로 돌아와 두 아들 쿠사이, 우다이를 함께 쫓쫓히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첩보는 바로 조지 테넷 CIA 국장에게 보고되었다.

04

긴박하게 돌아가는 백악관

조지 테넷 국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곧장 백악관으로 향했다. 한편 CIA의 이라크 첩보를 수시로 확인하던 린스펠드 국방장관도 사항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백악관으로 향했다. 백악관에 도착한 조지 테넷 국장은 이러한 첩보를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백악관에는 이라크전과 관련된 미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착한 인사들은 이번 기회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조지 W 부시. 후세인에게 준 48시간의 최후통첩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조지 부시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만약 후세인을 제거한다면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고, 그를 놓치더라도 후세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 넘어 산

미 중부군 사령관인 프랭크스 대장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백악관에 보고한다. 7시 12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고, 2기의 F-117 전투기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떠나 바그다드를 향해 날아올랐다. 그러나 너무 긴박하게 결정된 작전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작전이 새벽에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F-117 전투기의 별명이 Night Hawk(밤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F-117 전투기는 야간공습을 주 임무로 하는 기체였다. F-117 스텔스 전투기가 바그다드 상공에 도착해 공습을 시작할 때에는, 바그다드는 동이 틀 무렵이었다. F-117 전투기가 스텔스라는 마법으로 레이더를 속일 수는 있지만, 밤이 아닌 이상 육안이나 기타 광학장비에는 스텔스도 소용이 없었다. 또한 F-117 전투기에 장착된 EGBU-27 스마트 폭탄도 문제였다. EGBU-27은 기존의 페이브웨이 III 레이저 스마트폭탄에 위성항법장치(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관성측정장치(INS :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추가한 스마트 폭탄이다. 악천후에도 운용이 가능한 환상적인 스마트 폭탄이지만, 불과 6시간 전에 F-117 전투기 운용이 인증된 무장이었다. 결국 실전에서의 사용은 이번 작전이 최초였다.

05



06



05 F-117 전투기에 장착된 EGBU-27 스마트 폭탄은 악천후에도 운용이 가능한 환상적인 스마트 폭탄이었지만, 불과 6시간 전에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F-117 전투기 운용이 인증된 무장이었다. | 사진 출처_미 공군

06 F-117 전투기들은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떠나 바그다드를 향해 날아 올랐다. | 사진 출처_미 공군

공습작전에 낙점된 F-117 전투기

처음 마이애스 합참의장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이용한 공습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후세인의 은신처가 병커로 확인됨에 따라, 병커를 파괴할 수 있는 2,000파운드 이상의 대형 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결국 낙점된 것은 F-117 전투기! 3월 20일 새벽, 미 중부군 사령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항공작전사령부에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다. 바그다드 시내에 위치한 병커를 공습할 F-117 전투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합동항공작전사령부로부터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F-117 2기를 언제든지 출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불과 15분 만에 F-117 전투기들은 모든 출격준비를 완료한다.

07 F-117 전투기에서 투하된 EGBU-27 스마트 폭탄은 낮게 깔린 구름 층을 통과하여, 병커에 수직으로 떨어졌다. | 사진 출처_미 공군

08 거대한 폭음과 함께 병커는 순식간에 폭발했고, F-117 전투기들은 바그다드 시내를 빠져 나갔다. | 사진 출처_미 국방부

07

08

공중의 암살자들

KC-135 공중급유기와 랑데부한 F-117 전투기들은 공중급유를 받았다. 공중급유를 마친 F-117 전투기는 각기 산개하여, 목표물이 있는 이라크 상공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F-117 전투기들이 바그다드 상공에 도착했지만, 바그다드의 기상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다. 잔뜩 흐려 있었고, 낮게 구름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새로 장착된 신형 스마트 폭탄을 시험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조종사들은 재빨리 장착된 EGBU-27 스마트 폭탄의 유도모드를 레이저에서 GPS/IMU로 전환했다. 바그다드 시각으로 새벽 5시 30분, F-117 스텔스 전투기에 EGBU-27 스마트 폭탄이 사담 후세인의 은신처로 예상되는 벙커에 투하되었다. EGBU-27 스마트 폭탄은 낮게 깔린 구름층을 통과해 벙커에 수직으로 떨어졌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벙커는 순식간에 폭발했고, F-117 전투기들은 바그다드 시내를 빠져 나갔다. F-117 전투기들이 바그다드를 빠져나갈 쯤, 페르시아만의 미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4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이라크의 광활한 사막을 넘어 도라농장에 떨어졌다. 또 한 번의 거대한 폭발이 도라농장을 엄습했다.

09 페르시아만의 미 해군 함정에서는 4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도라농장을 향해 발사했다. | 사진 출처: 미 해군



10 사담 후세인은 2003년 12월 13일 티그리스 지역의 한 농가에서 제121 특임대에 의해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되었다. | 사진 출처: 미 육군

절반의 성공

F-117 전투기들이 이라크를 빠져 나와 공중급유를 받고 기지로 돌아올 무렵, 영국 스카이 뉴스의 이라크 특파원은 바그다드 시내에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소식을 긴급히 전 세계에 타전했다. F-117 전투기들은 출격한 지 5시간 만에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목표물은 완벽히 파괴되었고, F-117 전투기들은 무사히 기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의 생사여부는 알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공영방송에 모습을 드러냈고, 출연한 사담 후세인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살아있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안타깝게도 이번 공습작전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후세인을 공습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전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결국 9개월 뒤인 2003년 12월 13일, 후세인은 티그리스 지역의 한 농가에서 미 특수부대인 제121특임대에 의해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된다. **AF**

LEADERSHIP

당신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나요?



'Win-Win'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Win-Win'이란 상생, 즉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공존공영 혹은 공생을 의미한다. 'Win-Win'은 우리가 지켜야 할 불변하는 삶의 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실천을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된다. 나도 과거에 승(勝)-패(敗)형, 즉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져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있었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이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슨 일에서든 내 생각이 그들의 생각보다 옳고 논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늘 같은 남편이자 아빠'니까 내 의견은 항상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설립하여 경영한 컨설팅회사에도 이런 생각은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자 문제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상사는 어른이고 윗사람이니까 부하는 상사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 생각이 서양 직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다. 그들은 사장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직인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직원들을 데려오는 방법을 써보았다. 그런데 내 말에 복종할 거라고 생각한 한국 직원들도 1~2년이 지나면 현직인 직원들에게 동조하거나 노조결성을 시도하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돌파구를 찾던 중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내가 봉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히 내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직원들에게 패-승, 즉 자신은 늘 지고 사장은 늘 이기는 상황을 거둬하게 만들고, 직원들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직하고 마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회사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베푸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실상 어렸을 때는 '친구나 이웃을 배려해주고 먼저 베풀어주면 메아리의 원칙처럼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또 교회 목사님의 황금률과 스님들의 인과응보에 관한 법문도 머리에 떠오르면서 언제부터인가 이기적이 되어 버린 나를 발견하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형제들과의 가족회의에서는 동생들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가정에서는 아내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했고 자녀들의 의견도 존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아내에게 장미꽃을 사다주기도 하고 비난 대신 칭찬을 자주 했더니,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기까지 했다. 아내가 결국 나의 노력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최소의 임금으로 직원들을 더 많이 부려먹을까를 생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을 성공시켜 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와 인정을 해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2~3개월을 변함없이 계속하니 직원들이 사장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먼저 변하니 가정과 회사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직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상부상조하기 시작하고 시너지가 일어났다. 그 결과로 금년 초에는 모 경제신문사에서 우리 회사에 관한 책을 내기도 하였고 지난달에는 우리 부부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에 관한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Win-Win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예전에 모 당의 분당 지역구 K의원이 엄청나게 바쁜 일정 중에 3일 동안, 우리 리더십 교육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적지 아니 바쁠텐데, 그 분은 아주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였다. 그는 긴가민가하면서도 분과위원회에 돌아가 Win-Win의 원칙을 활용해 봤더니 뜻밖에도 자신의 중재안이 채택되어 Win-Win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내 왔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 공무원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공군장병 여러분들도 Win-Win의 리더십을 배우고 나부터 변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크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AF**



오월을 닮은 하늘빛 사랑
* 경청노트

공군, 가족 그리고 사랑
* 기획특집

한쪽 날개엔 꿈을, 다른 한쪽 날개엔 사랑을...
* Photo Sketch

신임 참모총장 이·취임식
* 포토프레임@AF

2012. 05. NEWS
* Air Force Monthly

장점을 발견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 생각하는 그림

공군IN

오월을 닮은 하늘빛 사랑

어머니의 병실에서 원고청탁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곤한 잠을 깨지 않으려고 복도로 나와 목소리를 죽이며 통화를 하는데, 글의 내용이 '공군, 가족 그리고 사랑' 이란다. 아픈 어머니를 곁에 두고도 공군이라는 말에 습관처럼 가슴이 설레는 걸 보면 나는 아직도 애뜻한 '공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보다. 공군은 사랑이다. 어머니도 사랑이다. 푸른 이미지의 공군, 질푸른 이미지의 어머니, 그리고 하늘빛 사랑이 닮았다는 생각을 문득 해 본다.

오월이 오면 누구나 사랑을 말한다. 오월 하늘처럼 보드레하고 아름다운 하늘빛 사랑에 젖어든다. 가족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오월에는 늘 앞장을 선다. 오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다. 오월이 오면 자식들은 카네이션을 산다. 어버이들은 가슴에 훈장처럼 카네이션을 단다. 자식이며 또한 어버이기도 한 이들은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고, 자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다. 사랑은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오월의 사랑에 빛깔이 있다면 그건 하늘빛일 것이고, 향기가 있다면 아마도 카네이션 향기일 것이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의 문자가 달려온다.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 외할머니 병실이라고 답문자를 보낸다. 할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묻는다. 괜찮으시다고 답한다. 어릴 적에 내가 출근을 하고 나면 외할머니 손에 자란

터라 아들은 외할머니와 정
이 깊은 사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는 아들의
문자

에 나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들아, 너도 나중에 엄마 잘 보살펴 줘야 해.' 그러겠노라고 아들이 답한다. 이것이 바로 '공군, 가족 그리고 사랑' 이라고 나는 혼자 슬며시 웃는다.

공군이던 남편이 전역을 한 지는 까마득히 오래 되었고, 공군이던 아들이 전역을 한 지도 어느새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푸르른 공군복을 입고 내 앞에 서 있던 남편은 이제 희끗희끗 흰머리가 돌아난 나이가 되었다. 푸르른 공군복을 입고 휴가를 다녀가던 아들은 그새 몇 번의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

아들의 공군 동기생이 얼마 전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아들에게도 머지않아 여자친구가 생길 것이고, 결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가 될 것이다. 손자가 생기면 필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노라 했던 순간들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아릿해진다. 진주 교육사 연병장에 아들을 두고 오던 그 시간들도 이제는 추억 저편에서 가물거린다. 시간의 흐름이 요즘은 빛의 속도에 버금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다닥 지나간다. 내 시간들이 감히 내 생각의 속도를 앞질러가고 있다.

아주 오래 전 나는 공군의 여자친구였다. 그 무렵 내가 출근하던 남자중학교 근처로 남편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는 바람에 선배 교사의 눈에 띄어 우스개 비스한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요즘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길 일이지만 그 때만 해도 오래 전이라 약간의 잔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다. 남학생들의 까만 교복 사이에서 각이 잡힌 군복이 유난히 눈에 띄었을 거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난다.

공군의 여자친구였을 뿐 아니라 그 얼마 후에는 공군의 아내가 되었고, 몇 해 전에는 공군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내 '**공군아이**'는 제법 역사가 길고도 깊다.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과거형이 되었다. 이제는 두 예비역 공군의 아내이고 어머니일 뿐이다.

얼마 전에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를 만났는데 옷깃에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아들 면회 갔더니 옷깃에 달아주더라고, 아들의 마음이 안 쓰러워서 그냥 매달고 다닌다고 했다. 나도 한때는 사랑으로 애가 달던 군인의 여자친구였고 또 엄마였는데, 그 시절의 애뜻한 마음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서 잔잔히 머무르고 있다. 가끔 그 추억들이 떠오르면 혼자 웃곤 한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말은 정말 옳다. 아프고 힘겨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된다. 제아무리 행복한 순간들도 지나고 나면 그 역시 아스라한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

사랑은 변한다고 한다. 살아있으니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은 움직인다고 한다. 발은 없지만 날개가 달렸으니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은 동사라고 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 그 또한 당연하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처럼 살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이 안타까운 이유는 바람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흔들리며 피어났다가 안타깝게 지는 한 송이 봄꽃 같은 사랑이 그래도 고마운 이유는 사랑이 부질없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월에는 사랑하자. 주고 또 주는 사랑을 하자. 주고 나서 그만큼 되돌려 받을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자. 사랑은 부메랑이다.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랑이 너에게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낯선 곳을 빙 돌고 돌아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 거기로 가면 또 어떡랴. 나보다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사랑은 손 내밀어 붙잡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맘껏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훨훨 날려 보내는 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은 주고 또 주는 사랑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 것이라고 곁에 붙잡아두지 않고 맘껏 날아오르라고 자식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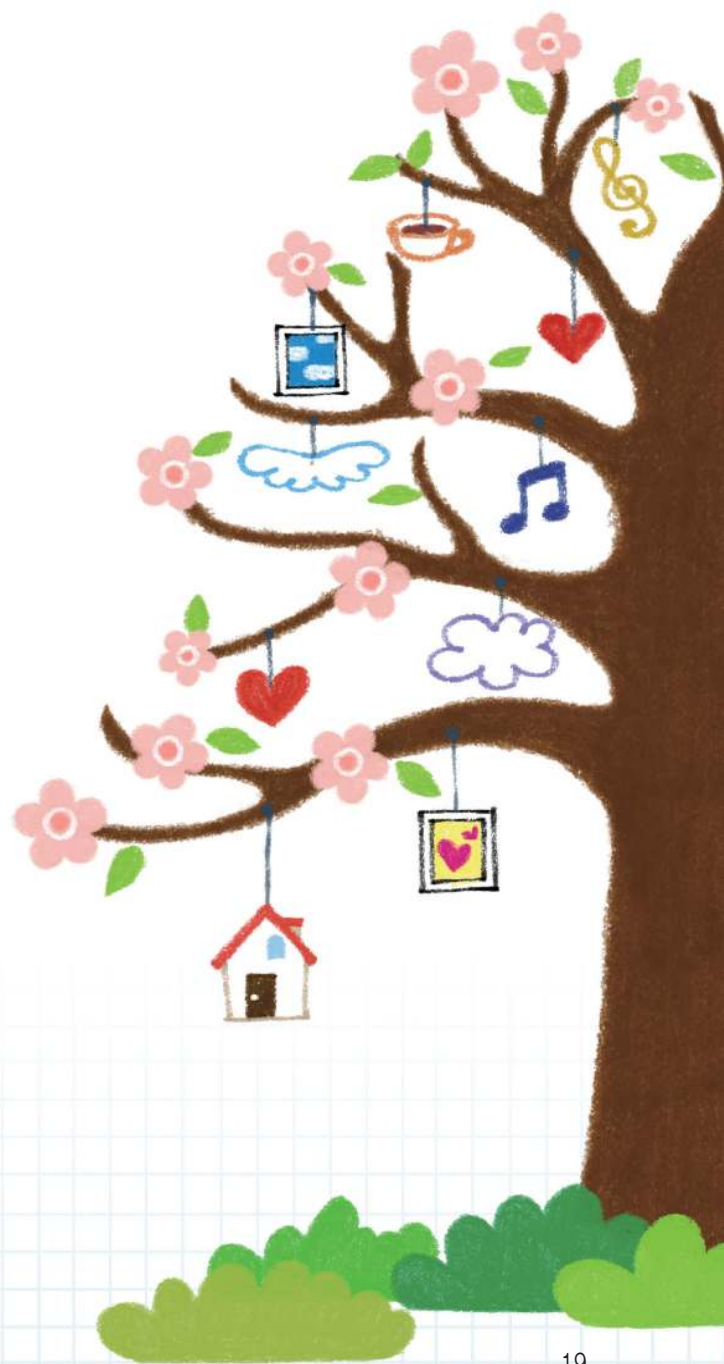
오월에는 아름답게 사랑하자. 오월을 닮은 하늘빛 사랑을 하자. 어머니에게서 배운 '주는 사랑'을 하자. 내 사랑 두 예비역 공군이 여전히 잘 지내고, 내 사랑 어머니도 퇴원 후 잘 회복하고 계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내다본 창밖 하늘빛이 곱다. '공군, 가족 그리고 사랑'이라는 글의 제목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오월이 창밖에 가득하다.

세상 모든 자식들에게 꿈과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신 모든 어머니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경례를 바치며 이 글을 맺는다.

필승, 공군!

필승, 어머니!!

필승, 세상의 모든 사랑!!! AF



나에게 가족은...

가족, 두 글자밖에 안되는 이 낱말에는 너무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은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에너지일 때도 있지만 힘겨운 짐일 때도 있죠. 그 품이 눈물겹게 그립다가도 어떤 땐 공연히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쁠 때, 그리고 가장 슬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은 누가 뭐래도 가족이라는 것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독자들의 가족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글들은 월간 「공군」 편집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지면이 한정돼 있어서 더 풍성하게 소개드리지 못한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가족 이야기들을 월간 「공군」과 함께 나눠봅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영웅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얼마 전 가수 인순이가 한 가요 프로에서 선보여 화제가 된 곡, ‘아버지’의 한 구절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늙는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초라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의 심정은 쓸쓸함과 두려움의 혼재,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말하자면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마술사였고 카레이서였으며, 요리사이고 의사였습니다. 저를 세상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는 제게 세상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제 두발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고, 갈치구이의 가시바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냇가에서 송사리 잡는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엄마가 용돈을 적게 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발끈은 어떻게 묶어야 나중에 헐겁게 되지 않는지도 알려주셨죠.

그런 아버지가 만능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안 것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방학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가 “눈이 이상하다.”는 말쯤과 함께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 지병인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날로 아버지는 운전을 그만 두시고, 얼마 전 새로 산 차를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누게 되고, 집안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4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그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깟 병마 앞에서 무방비로 나

약해지는 모습을 중학생인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에 적응하게 마련이라 약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에 저는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

학생이 되면서 키는 이미 아버지를 훌쩍 넘어섰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생선의 가시를 바르는 일도 아버지보다는 제가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초, 정기 외박에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외출하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살펴 보았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흰머리와

주름이 아버지의 얼굴 곳곳을 덮고 있더군요. 가진 것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만화영화 속 주인공 영웅의 뒷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술자리에서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만고불변으로 영원히 스스로를 뽐내는 영웅은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슈퍼맨인 줄 알았던 아버지도, 그저 흰머리 나고 전자기기가 어색한 50대의 초상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듯이,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건네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아버지는 제

게 여전히, 그리고 오래도록 ‘영웅’일 것입니다. 인순이의 곡 ‘아버지’는 잣아드는 반주와 함께 이런 가사로 끝을 맺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말하지 못했던 그대, 내가 사랑했었다.”

아버지께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하고 물음이 드는 순간, 곁에서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고 어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만 해서 죄송합니다. 삶을 통해 아버지가 웃고자 했던 꿈과 가치, 사랑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로 오래도록 깃들여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게 이 세상 최고의 영웅이십니다.

글. 병장 이규원 | 32전대 통제부 작전계



나에게 엄마는 “별”

필승! 제1방공포병여단 592정비대 윤성주 상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더불어 살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대로 제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의 무게까지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복극성처럼 변치 않는 제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점점 머리가 클수록 제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임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무게만으로도 한 무릎이 꿇릴 때에는 그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고 난 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이라는 녀석과 싸운 지 약 1년 반이 지난 즈음, 제가 군대에 들어간 지는 꼭 7개월, 갓 일병을 달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꽤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슬픈데 남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에 심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버스에서 제 엄마를 귀찮게 구는 꼬마에게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타인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이 사치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 꿈에 나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란한 마음에 창밖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빛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을 발하는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 못한 마음을 묵묵히 꾸짖어 주면서도 아픈 맘을 감싸 안아주기 위해 ‘별’로 들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별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그 넉넉한 마음까지 모두 별빛입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열심히 해서 더욱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 다른 이에게 별이 되고 싶습니다.

필승!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애뜻하고 또한 가슴 뭉클한지 같이 살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도 그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요. 노란 개나리가 피는 봄이 되니, 꽃을 사랑했던 엄마가 더욱 그리웁습니다. 모질지도 못한 분이 어째서 그리 일찍 서두르며 제 곁을 떠난 것입니까. 맘만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갇힌 고요함만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가는 법입니다만, 이를 몰랐던 저는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엄마 곁에서 이것저것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소중한 것이란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깨닫게 하는 못된 숙명을 지니고 있지요.

지금에 와서야 그 때 엄마는 그냥 편히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제 욕심만 채겨 지치고 고단한 당신은 이들 밤을 병동에서 더 보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임종을 앞두고 하염없이 허공을 바라보던 초점 없는 그 눈은 도대체 제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엄마가 제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절대 자신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신 거지요. 이전 엄마가 20년 동안 저를 키워오면서도 변함없는 철학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제 꿈에 나오시고 밤하늘의 별로 다가오셨습니까. 당신이 저를 이렇게 올바르게 건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이 ‘잠들어도 깨어도 생각나게 든 그리움이려니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낭만이 되고 추억이 되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떠있는 별이 신비한 것이라면 저는 당신을 그만큼 먼 곳에 두고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하루를 떠반들어주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하루를 거뜬히 들어 올려 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또 봄입니다. 우리 비행단에는 꽃내음이 가득합니다. 또 한번 별빛을 타고 이곳에 들려주세요, 등직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글. 상병 윤성주 | 1여단 592정비대 보급중대



비상(飛上)을 꿈꾸는 노란 병아리

우리에게 아들은 노란 병아리입니다. 아직 먹이를 찾는 것도 서툴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어미닭의 품을 그리워하는 노란 병아리입니다. 아들은 유치원 다닐 때 유난히 노란 점퍼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노란 옷을 입은 여자를 짝으로 해달라고 선생님과 엄마를 졸랐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노란 병아리는 공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병-아직 병아리 병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병아리는 미래의 비상(飛上)을 꿈꾸고 있습니다. 봉정만리(鳳程萬里)의 꿈을 말합니다.

공군 이병 우리 아들 김남홍, 이제 서울 시내에도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 노란 꽃들이 피어나 마치 앞날을 약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네가 근무하는 곳에도 개나리가 활짝 피었지? 왜 까닭인지 노란 꽃을 보노라면 네가 자대 배치 받은 후, 첫 면회 갔을때 네 어깨에 달렸던 노란 견장이 생각난다. 이병 계급장에 노란 견장을 달고 군기가 바짝 들어 엄마 아빠를 보고도 머뭇거리며 어색하게 면회실에 들어서던 네 모습. 부대 내 식당에서 시켜 준 삼겹살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니 한 시간도 못되는 짧은 식사를 마치고는, 면회소로 돌아가는 부대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차렷 자세를 유지하던 병아리 공군 이병 우리 아들.

사회에 있을 때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 늦잠을 자는 일도 많았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던 철부지였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도 많이 났었고. 무척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네가 군 입대 두 달여 만에 그렇게 절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릿길을 차를 몰고 달려 면회를 갔던 엄마 아빠는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지만, 자식이 원지 한편으로는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자대 배치 받은 후 한 달이 안된, 부대 사정에 익숙지 못한 신병들에게는 노란 견장을 달아준다는 네 설명을 듣고 요즘 군에서 합리적으로 신병관리를 하는구나 싶어 무척이나 안심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장가를 갔어도 될 법한 녀석이 늦깎이 병아리 졸병이 된 것이 실감나면서 재미있는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빠 댁기 웡~ 갔다.” 이 말은, 이란과 아라크간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아빠가 현 직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에 근무하면서 기온이 50℃를 웃도는 이라크 베이지의 “현대건설 북부철도 건설현장사무소”에 영국·독일 회사가 설계한 최신철도기술 OJT(On the Job Training)갔을 때 두 살 난 네가 했다는 말이다.

현장사무소에서는 점심식사 후 짧은 낮잠 시간을 갖는데, 그럴 때면 꿈결에 네가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어찌 그리 자주 나타나던지... 잠을 깨면 주위는 사막의 열기로 가득 찼는데 난 가족 생각만 하면 열사의 폭풍도 거칠 것이 없었다.

아들, 이제 부대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대며? 그리고 네가 근무하는 부대에서는 아침에 기상하면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함께 공군가를 부른 후 필승을 외치며 일과를 시작한다지. 얼마나 멋진 남자들의 일터냐. 사회의 직장 같으면 그런 단체 일조행사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일쑤일 텐데. 네가 아침마다 부르는 공군가에는 또 새겨 불한탄 뜻이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가. - 하늘, 꿈, 겨레, 나라, 정의, 자유.

아빠는 노란 병아리 공군 이병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남북으로 분단되어 항상 국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군가에 들어 있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군에서 익히는

덕목, 위사람을 받드는 예절과 전우를 사랑하는 동료애는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들이 지금은 노란 병아리 이병이지만 군에서 절제된 행동을 배우고, 사회에서 겪

어보지 못한 것들을 터득하고 나오는 날, 아빠는 장자에 나오는 봉정만리-“봉새는 한 번 날면 단숨에 하늘을 찌르고, 9만리를 난다.”-의 꿈을 아들이 꼭 실현하리라고 믿는다.

“아들 댁기 웡~ 갔다.” 먼 옛날 아들이 한 말을 이번엔 아빠가 되되어 본다. 지난번 네 외박 후 귀대하던 날 네가 탄 비행기가 하늘 멀리 사라지는 것을 엄마 아빠는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지. 다음 외박 나올 때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더 의젓하게 성장했을까 그려 보면서...

글. 김영진 | 51전대 항공통제대대 작전계 김남홍 이병의 아버지



나에게 가족은 새로운 고향이다

강원도 "거진". 과거 국내 최대의 명태주산지라 그곳 주민들은 물론 지나가던 건공들도 명태 살에 배를 붙인다던 그 곳... 현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과거의 화려한 명성은 사라지고, 점점 퇴락해가는 시골마을. 그곳에서 저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처음 만났습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 공군은 당연히 비행기와 함께 근무하고, 근무지도 대도시에서 있는 비행단일거라는 저의 생각은 참 순진했습니다. 훈련 중 에 주워들기를 항공통제를 받으면 SITE라고 하는 완전시골 골짜기로 가야 된다고 하더니만, 제가 하필이면 항공통제특기를 받고 동해안 최북단 작은 시골 어촌마을인 거진으로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진우체국에 근무했습니다. 운영계 근무시절 우체국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흘금흘금 쳐다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져 뺨 다 뛰쳐나온 했는데, 어느새 애뜻한 사람이 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속초에서 일을 마치고 거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속초의로원 응급실이었고 그녀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비뼈 두개와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정도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지요.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사고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없는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의 일과는 하루 종일 그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퇴원 다음날 바로 그녀의 아버님을 찾아뵙고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 살겠노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껌직한 도발(?)을 감행했고 아버님께서는 흔쾌히 방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방 새개인 그 집에서 그녀의 아버지·어머니께서 방 하나를 쓰시고, 그녀와 제가 각각 방 하나씩을 쓰는 약간 묘한 가족관계가 탄생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성장했던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은 새로운 세상이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과 안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보건소 가서 독감예방주사 맞으래." 그녀에게 이 말을 들었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합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내가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녀 소개가 늦었네요. 거진에서 초, 중, 고를 속초에서 대학을, 다시 거진에서 직장생활을 한 거진 토박이입니다. 강원도 여자 특유의 살가움이나 애교도 없고 강원도 감자처럼 무뚝뚝하지만 항상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저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성실하지요. 그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송성실"입니다. 하하하!!!

2년여의 달콤한 시간이 흐른 후, 단분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리산으로 전속을 가라고.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지금 가족의 품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이 생활을 영위하고 싶는데, 전속을 가게 되면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성실님의 반응을 달랐습니다. 거진토박이인 그녀가 수도권에서의 새 생활에 급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거진토박이인 그녀에게 안양이라는 도시에서의 생활은 아마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명예 외에 전속을 가게 됐고, 드디어 송성실님의 화려한(?) 도시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거진으로 들어갈 때에는 저 혼자였지만, 나을 때는 저와 그녀, 그리고 우리 연우 이렇게 셋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연우 고향이 거진인지 모르. 엄마와 같은...

2006년 12월 31일, 수리산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다음날 새해 해돋이를 관사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습니다. 떡국을 먹고, 저희 30단 소개영상을 보는데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SITE에서만 근무하는 모습만 보던 그녀에게 저희 30단의 임무와 역할이 멋있어 보였나봅니다. "오빠는 왜 SITE에서만 있어? 항공통제특기가 MCRC에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여 저는 11년간의 SITE생활을 마치고 현재 오산 MCRC에서 영공방위의 최일선 요원으로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새로운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먹먹한 상처뿐인 기억이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 인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아내, 연우, 연두, 그리고 저에게 가족의 참의미를 일깨워주신 거진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다시 거진에 가서 온가족이 둘러앉아 싱싱한 회 한 접시에 그때를 추억하고 싶습니다.



글. 상사 김강현 | 30단 31전대 방공통제부



나에게 딸은 '공기'

모든 어머니에게 있어 딸의 존재가 다 그러하듯, 제게 있어 딸은 자식이지만 때로는 친구이기도 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딸은 나이가 들어갈 수록 어머니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게 딸은 저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보여줄 수 있는 편한 친구이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공기같은 존재입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5월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주말에 널 봤는데도 엄마는 네가 또 보고 싶구나. 앵두랑 폭지(강아지)도 네가 왔다가 다음 날이면 더욱 더 우울해 한단다. 엄마 아빠는 이제 익숙해 졌지만 저 녀석들은 아직도 언니랑 떨어져 있는 것이 어색한가 보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작년 3월, 네가 공군 사관후보생에 합격하고 머나먼 남쪽 진주로 내려가 우리는 처음으로 헤어지게 되었지. 씩씩하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안아주던 너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예전처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한참을 혼자 울었다.

경아, 너는 아기였을 때부터 너무 착한 아이였단다. 몸이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엄마가 힘들어 할까봐 그랬는지 잘 울지도 않고 놀아달라고 응석 부리지도 않았지.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순둥이처럼 웃기만 하던 너의 모습이 엄마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직 유치원생이었던 네가 아빠와 손을 잡고 건다가 넘어졌을 때 너도 아팠을 것이 분명한데 “아빠는 괜찮아?” 하고 아빠 건강부터 챙기던 우리 딸. 그런 너를 보며 한편으로 기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가슴 한쪽이 아파움을 느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철없이 음식부리며 지내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겠지. 그래도 너는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예쁘게 커주었어. 내가 아프면 만사 다 제치고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던 내 딸. 어쩌면 나는 그런 너를 늘 옆에만 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솔직히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너무 싫었다. 남자도 아닌 네가 왜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 그냥 다른 딸들처럼 직장에 다니고 좋은 곳에 시집가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단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잘 다녀오라는 말도 안 해주고, 계속 화만내서 많이 서운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인 내가 참 어린애처럼 굴었던 것 같구나.

한평생 살아오며 편지라고는 써본 적이 없던 내가 펜을 잡고 처음 쓴 편지가 우리 딸에게 쓴 위문편지였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던 씩씩한 내 딸이었지만, 텔레비전에서 만 보았던 힘든 훈련을 내 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루 종일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겨우 교육사 상담에서 새까만 콩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경아를 사진 속에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편지 속 뽀뽀배배들 지렁이 기어가던 내 글씨가 점점 멋들어진 정자체가 되어 갈 때쯤 우리 딸은 멋진 다이아를 어깨에 달고 공군 소위가 되어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

왔지. 정확히 말해 이제네는 엄마의 아빠만의 딸만이 아니고 국가의 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엄마는 아직도 약간의 서운하단다.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딸자식을 두었다

는 자랑스러움이 더 크다는 것 알아주었으면 해.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한 자랑스러운 나의 딸아.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족으로 남도록 하자구나.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처럼 소중한 내 딸, 사랑한다.

글. 박연순 | 제17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중위(진) 장경아의 어머니



가족, 그리움

"Cleared leaving, maintain VFR¹⁾.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Good night!"



평범하지만은 않은 이 대화가 지금의 남편과 연애할 때 우리의 저녁인사였습니다. 야간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는 남편과 전투기 관제를 맡고 있었던 저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남편은 우리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 저는 조종사를 관제하는 방공무기 통제사입니다. 영공방위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하는 일의 특성상 24시간 3교대 근무인지라 남편과의 통화시간을 맞추기도, 휴일을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남편이 비행하는 시간과 저의 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면 임무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수고했다'라는 말로 작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보기 힘들고, 통화조차하기 힘든 연애를 하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키워나갔고, 좋은 기회가 생겨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두 딸도 얻었습니다. 사실 바쁜 일상에 치여, 언제 저렇게 주파수상으로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다시 MCRC로 가는데, '우리가 이랬던 적도 있었지.'라는 생각도 들구요. 저는 오산으로, 남편은 예천으로 갔거든요.

같은 곳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남편과, 두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전화를 하려 해도,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 밥 먹고 씻는 시간을 잠깐 피하고 나면 그 날은 또 아이들이 왜 이리 일찍 잠이 드는지... 하루 종일 아이들 목소리조차 듣지 못해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절로 궁금해져 오히려 남편은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쉬는 날이 되면, 집으로 가는 길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아이들과 만나면 일주일간 생활했던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만들고, 짧은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생각하며 집에 갑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늦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밤에 웃어주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큼니다. 쉬는 날이 평일이면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녀와서 다 같이 앉아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저 녀석만큼 없거든요. 혹여 남편이 야간비행이나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속상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가 여섯살 정도로 자라면 엄마는 왜 일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도 한데, 제 큰아이는 엄마가 일하는 거 싫다고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늘 엄마보다 아빠가 좋다는 두살 어린 작은 아이는 "엄마 일하니까 할머니가 같이 게실 거"라고 말해주니 쿨하게 알았다고 하고는, 헤어지는 시간이 되자 "엄마, 가지마. 엄마, 나도 같이 가!"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을 망설이다, 일주일 뒤를 생각하며 뒤돌아서 오산으로 향합니다. 늘 곁에 있을 땐 깨닫지 못하다가 멀리서 지내다 보니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많이 그리워집니다. 때로는 힘들고, 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보여주던 아이들의 함박웃음과 내게 들려주는 남편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억해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자정. 아직은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출근하는 길.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남편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떠나오던 날 큰 아이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엄마! 여섯 밤 자고 번개처럼 와야 해!" 그래서인지 오늘 밤근무는 번개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보!

전화로는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같이 있어도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내 작은 투정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많이 신경 써주고 있는 거 알아요. 고마워.
새 대대에 적응하고, 나 대신 엄마 뭉까지 하느라 고생 많은 텐데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있어 내가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늘 안전비행 하세요! 사랑해!

사랑하는 두 딸 승연, 현주야!

봄이 되어 주변에 환하게 피고 있는 꽃들을 보면 여기저기 피어나던 들꽃과 민들레 씨앗을 너무나도 좋아하던 너희들이 생각난다. 지금은 엄마와 떨어져 있지만, 그러기에 같이 있는 짧은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너희와 만나는 날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많이 웃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하늘만큼 땀만큼!

1) Visual Flight Rules, 항공기 계기에 의존하지 않고 조종사가 시각으로 지상을 관찰하면서 비행하는 방식





희주야... 아빠 어떻게 안 되겠니?

나는 세 아이의 아빠다. 아들(10살), 아들(8살), 딸(5살)... 금메달이라 일컫는 환상조합은 아니지만, 막내가 딸인 것에 안도감을 갖는 나와 아내, 그리고 시샘어린 주위의 반응들이 우리 딸 희주의 위상을 새삼 강조해준다. 1차 성징이 있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냥 같은 애들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여자아이들은 확연히 달랐다. 가뿐하게 안을 수 있고 피부도 훨씬 보들보들하다. 소통하는 방법도 달랐는데, 이 사실을 희주와 불통(不通)이 된 뒤에야 깨닫게 된 건 돌이킬 수 없는 나의 불찰이 되고 말았다. 남중(中), 남고(高) 그리고 사관학교로 끝장을 보고만 남아 위주의 내 모습 경험들도 불통에 일조하였으니, 그래서 막내... 그것도 딸인, 희주는 아빠와 엄마를 구별하던 순간부터 내게 맘이 멀어졌다.

희주에게 최선안은 엄마, 차선 안은 할머니다. 두 사람 모두 희주의 맘을 읽어내는 공감과 탁월한 배려로 희주의 찡그린 얼굴을 수분 내 스마일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고 3등자리도 만만찮은 게 아니니, 이미 자리를 꿰찬 큰오빠 은재가 감성어린 돌봄으로 나와 격차를 많이 벌려놓았다. 희주와의 이런 관계를 “현실태/문제점, 추진계획, 기대효과”로 추려내라면 자신 있는데... 이런 생각만하니 나도 문제겠지.

그래도 희망은 있다. 내 유혹에 초지일관 반응하는 것이 있으니 물질공세... 아직은 “보보 한 번에 초콜릿 하나”지만, 이대로 평행선을 걷는다면, “보보 한 번에 백(bag) 하나”가 되려나? 어이쿠... 월급쟁이 생활 뻔한데... 이제라도 희주 맘을 휘어잡을 다른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희주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하다. 우리 집에 온 첫날, 이른바 가슴으로 낳은 아이 희주는 며칠을 앓았다. 사회복지사의 설명이 그랬다. 말 못하는 아기이지만 환경이 바뀐 걸 알아채는 거라고, 더 품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이 그런 거였다. 술한 고민과 상의 끝에 결심한 일이지만, 내심으로는 순간순간 조바심도 일었었다. 희주가 큰돈 드는 병에라도 걸린다면, 양부모 사랑의 한계라도 나타난다면, 나는 희주에게 늘 지금과 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는 내 아이이지만 다른 면도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사슬지어 연결되기 시작하니 괴롭기만 하였다. 그렇다면 아내는... 열 달을 품어 세상 밖으로 내어내지 못 하였으니 엄마된 여자로서의 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다고 천지의 인연이 뒤바뀐 희주는 그냥 무덤덤했을까? 표현 못하는 여린 심성이 소화가기엔 과정들이 버거웠을 텐데. 그래서 몸이 아팠던 것은 아닐까?

희주가 생후 1개월째 입양되어 우리에게 온 지 벌써 4년째. 다름없는 일상과 함께한 다반사를 나누는데 변함과 구애(拘礙)가 없고,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의 아픔을 기꺼이 나누는 우리는 가족이다. “딸이 엄마를 꼭 빼닮았네요!”, “누굴 닮아 저렇게 야무질까?” 등 주위의 물음에 실소를 머금기도 하지만, “정말 닮은 것 같지 않아?”라고 정색하는 아내의 반문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건... 함께한 그리고 함께할 나날들에 대한 우리 가족의 신뢰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희주가 아빠라고 불렀던 처음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가슴속에 쌓였던 체증이 한방에 내려가는 듯한 청량한 기분이었으니, 지금도 가슴 한편엔 생생하다. 이후로도 여느 아이와 똑같은 성장세였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 가족은 주저함이 없었다. 큰 아들 은재와 닮은 희주의 한 톤 높은 목소리... 나를 닮아 거미처럼 허공에 뻗치는 길디 긴 손가락... 아내와 닮은 유쾌한 웃음소리... 즐거운 퍼즐 맞추기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쯤. 어느덧 희주에게 덧대어진 생채기에 개의치 않게 된 우리가족의 모습은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수년 전의 내 모습을 되짚어 보기에조차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후, 퍼즐이 완성되고 준비된 언젠가는 희주와의 첫 만남을 끄집어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확신해 본다. 안타까움과 연민의 장이 아닌 한바탕의 소통과 끌어안음으로 갈무리 될 것임을... 더불어 소망하기를 우리 희주가 아름다운 마음과 포용으로 생부모의 아픔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희주를 통해 서로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족이기에 그렇다.

글. 소령 전찬삼 | 방위사업청 감사관



그는 끝까지 조종간 잡았다

사고조사위 “양손 모두 조종장치에”
“하늘서 꿈 이루시길”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없다”
며 “육신은
창공의 품
으로 돌아
갔지만 살
신 보국의
승고한 정
신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날인 5일 경기 수원시 순간에도 기체를 정상적으로 운
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으로 보인다.

신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도현이에게

나에게 큰 아들은 「우리가 사는 집의 기둥」입니다.
여전히 엄마·아빠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최우수
당선작

도현아, 네가 이 세상을 증진 지도 어느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그 곳에서도 너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을 것 같구나.
너를 먼저 보내고 너는 내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막막했는데.. 아니, 살고 싶지도, 살 자신도 없었는데... 살 사람을
어떻게든 살아지려구나. 가끔은 웃음꽃도 피우면서 말이다. 그래도 내가 떠난 이후로, 탄 하루도 너를 잊어 본 적이 없단
다. 특히, 5월이 되면 내가 잠든 시간 외에는 물론이고 길을 걸다가도 네 생각에 나 혼자 중얼거린단다. '길가에
필 이름 없는 들꽃도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하는데, 도현이 너는 참 야속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내가 거짓말
처럼 눈앞에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단다. 긴 여행에서 돌아와 혈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엄마, 저 왔어요, 배고파요.' 그
리고 나서도 똥장찌개에 김치뿐인 밥상이라도 밥 한 그릇 푹딱 비우겠지. 얼마 밥이 제일 맛있더라...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큰 아들. 말이라고 의젓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마음껏 풀어주지도 못했는데...
생각할수록 해주지 못한 것들이 후회로 남는구나. 지금 와서 후회할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이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마지막 인사하러 왔을 때, 네가 좋아하는 청양고추 넣고 부친
부추부침개를 못해 준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도 좋아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생각
하면 나는 가슴이 러질 것만 같구나.
도현아,
너를 만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은 렌데 막상 연필을 잡으니 생각이 잘 안 나는구나.
저 세상에서도 언제나 너의 동기생, 선·후배님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
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봐줘.
우리 다음에 또 연락하자.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도현아...
사랑해. AF

글. 김기순 |故 김도현 소령의 어머니



한쪽 날개엔 꿈을, 다른 한쪽 날개엔 사랑을...



지난 4월 7일, 제34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2 지역예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약 두 달 동안 전국 각지의 공군기지에서 예선대회가 펼쳐지며, 본선대회는 5월 1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장 가득 피어오른 동심. 그리고 그 동심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품어주는 가족들의 사랑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부녀 간에 사이좋게 감치!



모형 비행기야, 날아라!!



“아빠 저 비행기가 뭐야?”





93°한도의 공공은 바다 이야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경로 어린이 19,000원
- 평일 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경로 어린이 13,000원
-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입장권 구매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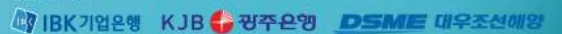
(입장권 구매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입장권 | 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1577-1763(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부) / 1544-1555(인터파크)

Official Global Partners



Official Partners



Official Sponsors



Official Suppliers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





글로벌전문학교그룹

한국항공전문학교

하늘과 나의 꿈이 맞닿는 곳

www.kac.ac.kr

한국항공전문학교



글로벌리아 ▾

검색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마트 원서접수



카카오톡 아이디
kac00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를
등록하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형일정 수시모집 1-2차 4.20 ~ 5.17 적성면담 5.18 ~ 19
수시모집 2-1차 5.18 ~ 6.14 적성면담 6.15 ~ 16
수시모집 2-2차 6.15 ~ 7.19 적성면담 7.20 ~ 21

원서접수 www.kac.ac.kr www.uway.com www.applybank.co.kr

입학상담 02.925.0037

“자랑스러운 선진 정예공군 육성”에 힘써

제33대 공군참모총장 성일환 대장 취임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
강한 업무추진력으로 높은 신망

제32·33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4월 18일 오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성일환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자랑스러운 선진 정예공군 육성”에 매진하여 실전적 전투훈련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비태세 유지는 물론 전 장병과 군무원들이 제 몫을 다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6기로 임관, 제17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 공군교육사령관 등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작전뿐만 아니라 기획, 사업, 교육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F-4E를 주기종으로 하는 전투조종사로서 2,5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의 탑건 스쿨로 불리는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에서 교관조종사로부터 대대장, 전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했다.

성 총장은 주변에 대해서는 자상하게 배려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덕장으로, 부하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임무수행을 이끌어내어 상하급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취 임 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국방부 장관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군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역대 공군 참모총장님과 공군가족,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가 보위를 위해 공군 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재임기간 중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공군> 육성에 헌신하시어 공군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 명예롭게 이임하시는 박종현 총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진력하고 있는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 장병들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최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 등 호전적인 군사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공군은 평시 전쟁 억제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유사시에 신속대응 군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 전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확고한 전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는 평소 전투요원들이 실전적 전투훈련을 바탕으로 주어진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도발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징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장환경에 부합되는 훈련소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고,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훈련은 과감하게 폐기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력 신장에 비례하여 우방국과의 연합훈련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몫을 다하는 공군인이 됩시다.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전 장병과 군무원들이 각자 제 몫을 다하는 가운데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소통과 상생으로 팀워크를 이룸으로써 공군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은 북한에 동조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 전 장병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신념화해야 하겠으며,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훗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안보교육의 도장화에 우리 공군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를 포함한 공군인 모두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걸음 먼저 나아가 소통하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식전을 주관해 주신 존경하옵는 국방부 장관님과 취임을 축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젊음을 다 바치시면서 눈가에 연륜이 가득한 채 전역하시는 박종현 총장님과 언제나 옆에서 훌륭한 동반자로서 내조를 다해주신 김정숙 여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우리 함께 공군을 멋지게 가꿔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성환

제33대 공군참모총장 대장 성 일 환

AIR FORCE MONTHLY

2012. 05. NEWS

지원자 부담 낮추고 교육효과 증진 기대

공군사관학교 65기, 조종분야 '우선선발' 제도 신설



공군사관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조종분야 '우선선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형 일부를 신설·개선했다. 올해 신설된 '우선선발' 제도는 수능과 관계없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1차 시험¹⁾을 2등급 이내로 통과한 2차 시험²⁾ 합격자 중 성별·계열별 모집정원의 30% 내외에서 종합성적(1차 시험 가산점³⁾ + 학교생활기록부 + 2차 시험 점수) 서열 순으로 선발한다.

'우선선발'을 위해 별도의 접수는 필요하지 않다. 조종 분야 일반전형 응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선발대상이 되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우선선발' 대상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일반선발 최종합격보다 약 50여 일 앞선 10월 12일⁴⁾에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합격자는 수능에 대한 학업 부담감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공사 입학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우수인재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인정신과 전문성을 구비한 정예 공군인 양성'이라는 사관학교 교육목표에도 부합하는 제도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학우수자·SAT우수자도 '우선선발'과 같은 날 최종합격 발표함에 따라 '우선선발' 합격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3년도 공사 65기 모집은 6월 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일반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더불어, 4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지역별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자들의 입시관련 이해를 돕고 있다.

입시문의 : 홈페이지 www.afa.ac.kr 또는 043-290-5504, 043-297-9156

계룡대 육·해군 장교, 공군 작전현장 체험 합동성능 향상에서부터!



공군의 작전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군 무기체계 이해를 위해 격납고에서 정비 중인 전투기와 항공 무장 전시관을 견학했다. 또한 29전대를 찾아 F-5, F-16 항공기를 관람하고, 공중 전술 개발 및 훈련에 활용하는 ACMI⁵⁾ 체계의 3차원 실시간 공중 기동 시뮬레이션을 체험했다. 이후에는 작전사령부 중앙방공통제소를 방문해 공중감시 임무 현황 및 브리핑을 참관하고, 합동 전장관리를 위한 각 군 전력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원인철 준장은 육·해군 장교들에게 “적이 도발하면 공·해·육군과 해병대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합동전력으로 신속정확하게 도발원점을 물론,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각 군 작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군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전투력 발휘효과를 극대화하자”라고 당부했다.

ROKAFIS, 부산관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공군에서 받은 사랑, 다시 돌려드립니다.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Republic of Korea Air-Force Internet Society)가 공군 부산관 대학생 자녀 4명에게 각각 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4월 12일, 공군

인터넷전우회 사무총장(김길용, 공군병 208기) 등 3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군본부에서 마련됐다.

공군은 공군인터넷전우회의 요청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산관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했으며, 장학금은 아버지인 현역부산관들이 대신 참석해 받았다. 공군인터넷전우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의 공군 예비역 모임으로 지난 2000년 5월 창설되어 사회봉사 및 위문활동을 펼쳐왔으며, 회원수는 15,000명에 달한다. 학업 우수 부산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공군인터넷전우회 김길용 사무총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3호비, 경성대학교 도서관과 교류협정 체결 대학 도서관 소장자료들을 부대에서 대출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제3호비행단(이하 3호비)이 경성대학교 도서관과 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교류협정서 체결을 통해 3호비장병들은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와 영상자료를 부대 도서관에 신청하면 이를 빌려 볼 수 있게 됐으며, 미소장 도서들도 별도의 신청절차와 심사를 거쳐 3호비 장병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성대학교는 도서관 방문이 가능한 영외 장병들을 대상으로 예치금이 면제된 특별 이용증을 발급해 경성대학교 학생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혜택도 제공했다.

이 도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재원 상병은 “부대 도서관에서도 많은 양서를 찾아 볼 수 있었지만, 대학교 도서관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전공 서적까지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도서관 대출 서비스를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1) 1차 시험 : 7월 29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3개 시험과목(영어, 외국어, 수리)으로 실시 예정
2) 2차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9월 3일~26일까지 공사에서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면접 실시. 개인별 1박 2일 소요
3) 1차 시험(영어, 외국어, 수리)의 상위 2등급 이내의 자에게 부여하는 1~20 점의 가산점
4) 10월 12일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우선선발’에 해당하지 않거나 탈락한 일반전형 응시자들은 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에 따라 11월 30일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됨.
5) ACMI(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공중 전투 기종 훈련체계) : Pod를 장착하고 기동하는 항공기의 고도, 속도, 자세 등 모든 비행자료는 물론 가상 무장배사 및 견과가 실시간 시연되고, 언제라도 복화가 가능한 공중기동 시연장비

소녀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은 뒤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말을 모두 들은 뒤 말했습니다. “진료실에 아이만 남겨 두고 잠깐 나가 주시겠습니까?” 의사는 음악을 틀어주며 소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좀 듣고 있을래? 엄마하고 옆방에서 나눌 이야기가 있단다.” 음악을 켜고 방을 나온 의사는 어머니와 함께 옆방에서 벽에 뚫린 창문으로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마자 소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때로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때로는 강렬하고 힘있게 몸을 움직이는 소녀의 모습은 마치 전문 댄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춤꾼이에요. 아이를 댄스학교에 보내세요.”

며칠 뒤 댄스학교에 들어간 소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뒹놀았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구제 불능의 학습 장애아로 치부되던 그녀에게 댄스학교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밤늦게까지 즐겁게 춤 연습을 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유명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춤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그녀는 뮤지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캣츠〉, 〈오페라의 유령〉 등의 안무가로 유명한 질리언 린(Gillian Lynne, 1926~)입니다.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DREAMS
COME TRUE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형거 게임

* Hollywood English

TV를 꺼주셔도 좋습니다.

* Air-Supply

공정의 힘, YES

* Art in Everyday

5월의 문화행사

* Preview

Culture



창조주가 여자를 나중에 만든 이유?!

“창조주는 왜 남자를 만든 다음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웃음>에 나오는 퀴즈입니다. 정답은? ‘걸작을 만들기 전 습작이 필요했다’입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세 명의 걸작님들이 초대형 블록버스터 걸작을 탄생시켰지요. 첫 번째 걸작님은 <해리포터 Harry Potter> 시리즈를 쓴 조앤 K. 롤링입니다. 그녀의 책은 무려 4억 5천만 권 이상 팔렸고, 영화는 글로벌 흥행에서 77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지요.

두 번째 걸작님은 2005년부터 ‘트와일라잇 신드롬(Twilight Syndrome)’을 일으킨 스타프니 메이어입니다. 독실한 모르몬교 신자인 저자가 꿈에서 본 내용을 기록한 게 <트와일라잇> 시리즈입니다. 인간 소녀가 뱀파이어와 사랑에 빠진다는 판타지 로맨스물이지요. 총 4권의 원작은 역시 영화화됐고, 글로벌 흥행성적은 25억 달러입니다.

세 번째 걸작님은 수잔 콜린스입니다. 서스펜스 넘치는 모험 이야기에 철학을 녹여 담은 재능이 탁월한 작가이지요. 200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헝거 게임 3부작(The Hunger Games Trilogy)’은 <헝거 게임 The Hunger Games><캐칭 파이어 Catching Fire><모킹제이 Mockingjay> 등이며, 첫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요. 1편의 북미 흥행 총수입은 3억 5천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세 편 다 비슷한 성적을 내면 북미에서만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산이 가능하겠군요.

미래 독재국가 판엠의 ‘화살촉’ 캣니스

이번 호에 소개할 영화가 <헝거 게임>입니다. 무대는 독재가 지배하는 미래 국가 ‘판엠(Panem)’입니다. 판엠은 라틴어 표현 ‘panem et circenses’에서 유래합니다. 영어로 옮기면 ‘bread and circuses’ 인데요, 로마 백성들은 ‘공짜 빵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정치적 권력과 책임을 포기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판엠은 수도 캐피톨(Capitol)과 캐피톨을 둘러싼 12개 구역이 합쳐진 국가입니다. 불행하게도 12개 구역은 캐피톨로부터 독재 통치를 받습니다. 암흑의 시대(The Dark Days) 때 반란을 일으킨 죄로 격리된 것이지요. 12개 구역의 사람들은 평생 악랄한 착취를 받아가며 캐피톨에 노동과 식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캣니스(Katniss)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헝거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식물의 한 종류인 Katniss는 잎이 화살촉을 닮았는데, 활을 잘 다루는 캣니스(제니퍼 로렌스)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지요.

<글래디에이터>의 미래 세계 버전

캐피톨의 통치자는 해마다 각 구역에서 두 명씩 차출합니다. 대상은 십대이며 반드시 남녀 한 명씩 뽑힙니다. 선발된 총 24명은 결투를 위해 캐피톨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건 검투를 벌여야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게 리얼리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사실! 공포통치를 위한 압제의 한 방법이라면 24명의 어린 제물을 선발 즉시 다 처형하면 효과가 더 클 텐데, 왜 캐피톨은 최종 생존자만 살려주는 검투 게임을 운영하는 걸까요. Hope, 즉 희망 때문입니다. 영화 속 대사, 즉 “Hope is the only thing stronger than fear”가 잘 말해주듯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서 게임을 극적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동생을 위해 목숨 거는 최초의 자원자

광산의 갱 폭발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캣니스는 실질적 가장입니다. 캣니스가 사는 구역은 환경이 가장 열악한 제12구역입니다. 그녀에게 여동생 프림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12살의 프림이 헝거 게임의 전사로 차출됩니다. 그러자 동생을 지키기 위해 캣니스가 자원합니다. 최초의 자원자입니다. 제12구역에서 함께 뽑힌 남자는 피타(조쉬 허처슨)이며 뽕집 아들입니다. 캣니스가 굶주려 있을 때 부모 몰래 빵을 나눠준 적 있는 은인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검투사들이 캐피톨에 입성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휘황찬란한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검투사들은 고난도 훈련을 받습니다. 게임의 흥행을 위한 담금질 과정인 셈이지요. 그들의 모든 훈련과정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을 쥔 스폰서들입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에게 낙점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모두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활의 신이 언제나 당신 편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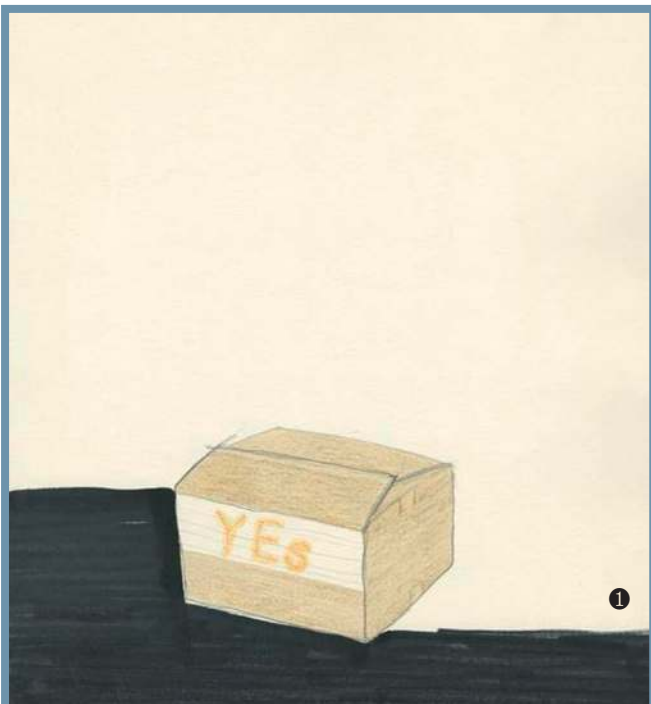
“May the odds be ever in your favor!” 게임 진행자가 그와 같은 응원의 축사를 던지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검투 장소는 야생의 숲 속. 보이는 족족 상대를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검투사들은 냉혈한으로 돌변합니다. 캐피톨의 중계실은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대포를 쏘 그 사실을 알립니다. 리얼리티 TV를 지켜보며 대포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겠지요. 중계실은 흥행성을 높이기 위해 변종 짐승들까지 만들어 현장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일부 검투사들은 연합세력을 체결해 힘을 합치기도 하는데, 과연 캣니스는 목숨을 지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티븐 킹도 극찬한 비범한 작품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강한 중독성이 있다. <헝거 게임>은 비범한 소설이다.” 이것은 공포 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의 찬평입니다. 로마 역사와 그리스 신화, 그리고 전쟁 스토리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수잔 콜린스의 디스토피아 세계는 책과 영화를 통해 계속 걸작 신드롬을 이어가갈 전망이지요. 끝으로 퍼블리셔스 위클리 서평을 옮겨며 글을 마칩니다.

“모든 시대는 각각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무자비하고 뻔뻔한 리얼리티 TV 쇼들은 우리 시대의 공포 그 자체다. 만약 오락에 대한 욕구가 인권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우린 어떻게 될까? <헝거 게임>의 캐피톨 사람들이 그 예시가 되리라. <헝거 게임>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아직 남아 있으며, 독자로서 다음 편을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AF





①

긍정의 힘, YES



②

① 박이소_YEs가 명기된 드로잉, 2002

② Ono Yoko_천장회화(에스회화), 1996

못 박기 회화를 인디카 갤러리에 전시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림에 못을 박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5실링을 낸다면 못을 박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내가 5실링을 줬다고 상상하고, 상상한 못으로 박으면 되겠네요.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와 똑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1966년 11월 9일, 전시에 사과 한 알을 덩그러니 올려두고, ‘벽에 붙은 나무판에 준비해 둔 망치와 못으로 못을 박아 달라’는 지시문을 내건, 이제까지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한 예술가의 전시회가 열렸다. 영국 런던의 서쪽 끝에 있던 인디카 갤러리. 이곳에서 아직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서른세 살의 전위예술가 오노 요코의 ‘세기의 사랑’이 시작됐다.

그녀에게 다가가 그림에 못을 박아도 되느냐고 용기를 내어 물은 남자, 그는 당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꽃미남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자신과 예술적 온도가 맞는 여자임을 직감했고, 자신에게 다가온 ‘세기의 사랑’ 속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몰고 다니게 되는 오노 요코와 존 레논.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은 이렇게 미술전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오노 요코는 일본의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진보적인 학교로 이름난 ‘자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린 시절 당시로선 보기 드물던 미국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전쟁을 겪으며 인생에 눈을 뜬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귀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다양한 예술과 예술가들을 접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혀 나갔다. 시, 음악, 행위예술, 회화 등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예술 분야를 아우르며 도발적인 작품들을 선보여온 그녀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현대미술작가가 됐지만, 여전히 그녀를 ‘존 레논의 아내’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녀에게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굴레를 씌운 세기의 스타 존 레논. 그가 낳은 작품들이 가득한 전시장에서 동양의 한 작은 여인에게 거리낌 없이 말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전시장 한 편에 놓인 ‘천장회화’ 덕분이었다. 천장에 작고 흰 사각의 캔버스가 붙어 있고,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놓여 있던 사다리, 그리고 천장의 캔버스 가장자리에 사슬로 엮여 늘어져 있는 돋보기 하나. 전시장을 둘러보던 존 레논은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 조심스레 캔버스 위를 살펴보았고, 돋보기 안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작은 글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YES”.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돋보기를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었지만 ‘YES’라는 그 글자에는,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 모든 것들을 부정하던 당시의 다른 예술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곧 가능성의 ‘YES’였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YES’였으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YES’이자, 자기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YES’, 자신

의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긍정을 의미하는 'YES'였다. 그 'YES'가 있었기에 존 레논은 그 긍정의 힘을 작품 속에 심은 여인, 오노 요코에게 말을 걸 수 있었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세기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이 누리던 세계 최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젖는, 자신보다 일곱 살 연상의 무명 예술가 오노 요코를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YES'에서 나온 힘이었을 것이다.

오노 요코 역시 바로 그 'YES'의 힘이 있었기에, '존 레논'의 빛에 가려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존 레논의 팬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마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와의 사랑과 예술을 지켜낼 수 있었으리라.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이제 그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말로 더 큰 사랑을 펼쳐갈 것임을 밝힌 그녀(실제로 그녀는 지속적으로 세계 평화와 기아 퇴치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YES'의 마법은 언제나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고인이 되고 말았지만 박이소 작가의 'YES'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마치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눈길을 피해 쓱 손쉽게 그린 듯한 'YES'가 명기된 드로잉'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이 상자에 'YES'라는 글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쪽에서 빛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박이소는 대학 졸업 후 뉴욕으로 건너가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며 브루클린에 대안문화공간을 만들어 운영했다. 그곳에서 벌인 작품 활동으로 그는 현지 언론의 주목을 먼저 받았고 뉴욕 브롱스 현대미술관에서의 초대전과 뉴욕예술재단상, 미국연방예술기금상을 받은 작가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SADI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작품 활동도 꾸준히 펼쳤는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으면서 남은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그가 이듬해인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대표작가로 선정되어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1년 후인 2004년 마흔일곱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작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또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작업이 더 기대되는 한 작가의 죽음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짓게 되는 것 역시 그가 뿜어내던 'YES'의 긍정적인 힘이 아닐까.

특히 그의 'YES'는 알파벳 'Y'와 'E'는 대문자로 'S'는 소문자로 표현되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곤 하는데, 작가가 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남긴 것은 없다. 하지만 언어와 번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해온 그의 작품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YES'는 Yes의 우리말 표현인 '예'를 영문 'YE'로 적은 것이고 거기에 영어의 복수형인 '-s'를 붙여서 긍정의 복수형을 만든 게 아닐까 상상해본다. 세상의 많은 yes들, 즉 더 많은 긍정, 더 큰 긍정의 의미를 담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운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인 것이다.

물론 모든 일에 'Yes'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오노 요코와 박이소, 이 두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긍정의 yes는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표현하는 yes가 아닌, 우리 마음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yes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다리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고 돋보기로 마음을 모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yes가 아닐까. 또 그렇게만 한다면 성별이나 나이, 신분이나 국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yes. 그리하여 존 레논이 '세기의 사랑'을 선물 받은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남긴 '그것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었다. 바로 그 Yes를 보고 나는 거기 머물렀다.'는 말처럼, 우리도 그런 yes의 세상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AF**



Ono Yoko_천장회화(예스회화)_1996





농담 같지만 진담 하나.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 집단은 무엇일까. 답은 모두 알고 있을 듯하다. 바로 현역 군인들이다. SBS <인기가요>나 MBC <음악중심> 같은 음악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면, 특히 소녀시대나 미스 A, 씨스타 같은 걸그룹들이 나올 때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생활관의 TV를 쳐다본다.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로 컴백할 당시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TV를 보던 광경은 인터넷에 올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음악 프로그램은 빅뱅이나 싸이니를 좋아하는 10대 소녀들도 열심히 본다. 하지만 그들은 군인처럼 본방송을 열심히 보지는 않는다. 인터넷이나 IPTV, 또는 HD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녹화기를 통해 언제 어느 때나 방송을 볼 수 있다. 본방송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방송을 볼 수 있다. SBS <일요일이 좋다>의 'K팝스타'가 방영되던 날,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여섯 명의 10대들이 스마트폰 앞에 몰려 앉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TV는 제시간에 맞춰 방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됐다. 10년 전만 해도 50% 이상의 시청률이 나왔던 드라마가 종종 있었던 것과 달리, 요즘은 30%만 넘어도 '초대박'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반대로 예능 프로그램은 갈수록 인기를 얻는다. 언제 어디서나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나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적합하다. 그래서 <인기가요> 같은 음악 프로그램은 그저 시청률로만 평가할 수 없다. <인기가요>의 시청률은 4% 내외다. 군인처럼 특수한 환경이 아닌 다음에야 일요일 오후에 TV를 기다리며 '본방사수'를 하려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대신 시청률은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올라간다.

지난달 가요계에 컴백한 그룹 빅뱅의 무대는 유튜브에서만 3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



록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팬들도 빅뱅이나 소녀시대의 무대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해외 언론 매체에서 <인기가요>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악 프로그램의 취재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K-POP의 해외 진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느덧 TV 대신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생긴 결과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지금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예전에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대형 세트를 설치하거나, 폭죽 같은 특수효과를 쓰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빅뱅 컴백 당시 <인기가요>의 연출진은 세트 하나를 만드는데 5시간을 들었다. 또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며 글씨가 써진다고거나, 무대 바닥에 실제 물을 채우거나 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갑자기 제작비가 늘어났거나 해서가 아니다. 음악프로그램 제작진은 이전에도 그 정도의 세트를 만들 역량이 있었다. 다만 그런 세트를 만들 때까지 가수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작진에게 “돈이라도 댈 테니 멋진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음악 프로그램 녹화에 시간을 하루 종일 들이는 것은 물론이다. 좋은 무대를 만들면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퍼져나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멋진 무대를 보여준 가수의 팬이 된다. 슈퍼주니어처럼 해외에서 인기 있는 그룹들의 동영상에는 한국어, 영어, 일어는 물론 아랍어나 프랑스어로도 댓글이 달린다. 그 무대를 본 팬들은 자연스레 그 가수들의 해외 공연 표를 예매한다. 몇 년 전까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국한되던 K-POP 가수들의 공연이 문자 그대로 전 세계로 늘어난 이유다. 빅뱅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20여 개 국에서 월드투어를 열 정도다. 만약 슈퍼주니어나 빅뱅 같은 그룹이 10년 전쯤에 데뷔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인터넷의 변화가 음악 프로그램을 바꾸고, 음악 프로그램의 변화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전혀 새로운 결과물들을 행복하게 시청한다. 소녀시대나 씨스타가 <인기가요> 컴백 무대에서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으며 몇 곡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제대로 잡아내는 촬영은 이런 변화의 결과물이다. 음악 프로그램만 이 아니다. 요즘 영화의 흥행은 시사회 직후에 결정된다. 시사회가 끝나면 관계자들이 SNS에 올린 영화평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흥행이 의문시 됐던 <도가니>나 <건축학개론>은 SNS를 통해 호평이 이어지자 개봉 첫 주부터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뒀다. 인터넷 사이트에 돈을 받고 악평이나 호평을 쓰는 ‘알바’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대중음악 가수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투어를 하고, 한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음악 방송을 내놓는다는 건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해외의 대형 방송사나 언론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안방에서 보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부터 스마트폰까지, 메신저에서 SNS까지 지난 10여 년 간 우리의 방에서, 또는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대중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절보다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장병들이 제대할 때쯤이면, 이 세상은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AF**

코믹 연기의 지존, 안내상이 초대합니다.

연극 <너와 함께라면>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3>에서 매사가 남 탓이고, 자기 몸 사리기에 급급한 철부지 아빠,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는 문무를 겸비한 성조대왕으로 출연해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배우 안내상이 이번엔 연극으로 대중과 만난다.

안내상이 연극 <너와 함께라면>에서 맡게 된 역할은 70대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 당돌한 20대 딸 आयु미의 아버지 '코이소 쿠니타로'. 딸의 남자친구가 자신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에게만큼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 해프닝에 휘말리게 되는 인물이다. TV 드라마와 시트콤을 통해 '코믹 연기의 지존'으로 불리는 그가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70세 노인사 켄야와 28세 아가씨 आयु미의 사랑을 둘러싼 가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을 그린 연극 <너와 함께라면>은 단순한 소동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 어린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가슴 따뜻한 코미디다. 남녀 간의 애정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되짚어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작품은 초등학교생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연극으로도 손꼽힌다.

- 기간 : 6월 10일까지
- 장소 : KT&G 상상아트홀
- 가격 : 전석 4만원
- 홈페이지 : www.thebestplay.co.kr



볼, 사랑해도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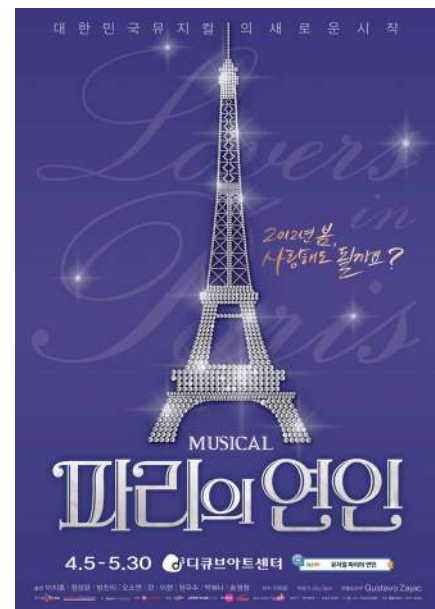
뮤지컬 <파리의 연인>

대한민국을 장악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 뮤지컬로 돌아온다. 분수대와 노천카페의 아름다운 풍경과 연인, 누구든 여행자가 되어 비밀스런 꿈을 꾸게 되는 도시 파리. 영화감독을 꿈꾸는 태영은 노점에서 꽃을 팔며 학비를 벌던 중 지나가던 노신사가 태영을 몸 파는 여자로 오인하고 행패를 부린다. 때마침 곁을 지나던 수혁이 태영을 도와준다. 수혁이 떠난 뒤 나타난 기주는 태영의 꽃을 무심히 짓밟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파티에 강원도 출신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파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뮤지컬 <파리의 연인>의 음악은 왈츠, 칸캉, 탱고를 넘나드는 유럽의 댄스음악, 클래식, 대중가요와 브로드웨이를 접목시킨 다양한 장르의 넘버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이다. 15명의 앙상블이 주인공을 서포트하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극과 음악, 동시에 활기와 재치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영화 <스파이더맨3> 등 할리우드 영화 미술감독으로 일하며 주목받고 있는 김희수 무대디자이너가 완성한 환상적인 무대 또한 <파리의 연인>의 놓쳐서는 안 될 관람 포인트다.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인연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공간이 서정적이면서 동시에 고급스런 느낌으로 펼쳐진다.

- 기간 : 5월 30일까지
- 장소 : 서울 디큐브아트센터
- 가격 : R 9만원 / S 7만원 / A 4만원
- 홈페이지 : www.musicalparis.co.kr



미래로 날아가는 새
5월이다, 다시 사랑하자
* 창공 글터

소화기내시경에 대한 이해
* Health Diary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가족
* 책마을

Opinion

미래로 날아가는 새

시. 김일영 | 시인, 〈창공 클럽〉 회원

새는 날아온 공중과
날아갈 곳 사이에 앉아 있다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새의 몸은 무엇을 읽고 있는가
날아갈 방향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온 시간과 갈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면
여기는 어둠으로 만든 감옥
새는 공간 전체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 속에 숨어있는 숨소리를
날개의 무게를, 먹잇감의 몸짓을
둥지의 식여가는 온도까지
그리하여 새는 주저 없이
박차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오는 것이 아니라 와야 하는 것,
궁리를 마친 새는
와야 할 시간을 향해
힘껏 날아가는 것이다



5월이다, 다시 사랑하자

글. 박선옥 | 시인, <창공 클럽> 회원

요즘 우리 집에서는 중학생인 둘째아이에게 말을 붙일 때 조금은 긴장해야 한다. 사춘기에 이른 나이여서 그런지 대체로 대답이 간단하고 불투명하다. 가끔은 툭 쏘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일도 있다. 얼마 전에 관창은 공연이 있어서 둘째에게 물어봤다.

“뮤지컬 <햄릿>이 꽤 괜찮았던데, 같이 보러 갈까?” “안 가요.”

역시 짧게 대꾸한다. 텅기는 듯한 답변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으면서도 왠지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은 둘 다 사내라서 그런지 무뚝뚝한 편이다. 청년이 된 큰아이에게는 이제 어딜 같이 가자고 설βολ리 말하지 않는다. 알아서 피하기 때문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사우나를 가자고 나를 보채기 일쑤였고,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되는 날이면 조조 프로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깨워도 웃으며 일어나곤 했다. 나를 따라 공연 음악회를 두 번이나 간 뒤부터는 “공군 군악대가 최고예요.”라며 내 한 공연 중인 세계 유수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대뜸 한수 아래로 밀어내는 바람에 속으로 실소를 머금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중학생이 된 뒤부터 몰라보게 변했다. 주말을 맞아 관창은 전시회에 같이 가자고 하면 매몰차게 거절부터 한다.

“왜? 전시회가 마음에 안 드니?” “아니요, 저 혼자 가고 싶어요.”

전시회가 아무리 좋다 해도 부모랑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명백한 동행 사절이다. 무표정과 냉랭한 어투에서 가끔 낯선 타인을 발견하곤 한다. 연극에서는 브레히트가 말한 소격효과(疏隔效果)가 맞아떨어진다지만, 우리 집에서 둘째가 거리 두기를 하는 데는 나뿐만 아니라 아내 또한 서운한 빛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랴. 아이는 어느덧 자신만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을. 문득 내가 둘째아이만 했을 적에 읽었던 <데미안>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어쩌면, 아이는 이미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 또한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 눈에는 기성세대의 가치가 불합리하고 구태의 연했으며 낡고 빛바랜 과거의 주름에 지나지 않았다. 구석진 곳에서 먼지를 켜켜이 뒤집어쓴 채 형클어진 몰골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퇴행의 상징, 모멸의 거꾸집짐으로 여겼다. 그 무렵의 나는 이 지구라는 별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손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멀리 사라지고 없다. 나 역시 기성세대의 일부가 된 것이다. 돌이켜보니, 언젠가부터 나는 아이가 외계인이라도 된 것처럼 단정했으며 오로지 내 잣대로만 가능하고자 했다. 아이의 상상력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내 기준만 들이대곤 했다. 소동이 되지 않는 벽 앞에서 아이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쓰리고 아픈 좌절과 분노를 삼켰을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지만 나의 잘못이 씻어지지는 않았다. 참담한 노릇이었다.

“아이와 잘 지내려면 그대로 두세요.”

아내는 나더러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귀땀하곤 했다. 지혜롭고 현명한 충고다.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주문이다. 아이와 잘 지내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아이는 청죽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다. 그대로 두면 된다. 아이들은 봄날 지천으로 돌아나는 썩과 같다. 가만히 있어도 싱싱한 내음이 절로 난다. 그 향긋한 내음은 산과 계곡과 들판을 가로질러 강물 저편까지 뻗어간다. 흐르는 물을 거스르면 어찌 되겠는가. 푸른 대나무 잎을 꺾거나 뜯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썩 잎을 꺾게 두지 않고 망가뜨린다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썩발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뒤늦게 말문이 터진 사람처럼 혼자 묻고 혼자 대답했다.

‘아이가 나를 스스로없이 따라다닐 때 더 잘해줄 것을.’

내 안에서 때늦은 후회가 비어져 나왔다. 어쩌면, 나 스스로 아이에게서 점점 멀어졌는지도 모른다. 허리춤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 거드랑이를 간질이면 강아지처럼 뒤집어지며 깔깔거리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를 냉랭하게 만든 사람은, 낯선 외계인은 바로 나였다. 그 실체를 마주친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비록 불편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지만, 지난주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갔다. 우리 부부는 모처럼 두 아이가 선뜻 따라와 준 것을 마냥 기쁘고 뿌듯하게 여겼다. 큰아이는 구순(九旬)을 맞은 할머니를 위해 조그마한 케이크에 초 아홉 개를 꽂아 불을 붙였고, 아내는 딸기를 씻어 쟁반에 받쳐 들고 어머니께 드렸다. 그때, 둘째아이가 한마디 했다.

“할머니께 축하 노래 안 해요?”

둘째의 말에, 우리는 잊고 있던 것을 갑자기 떠올린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얼굴들이 다들 환해 보였다. 그때만큼은 어머니 얼굴에서도 주름살이 사라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노란 산수유를 만났다. 서로의 어깨에 기댄 모습이 정다워 보였다. 붉고 섧노랗게 무리지어 핀 진달래, 개나리도 길옆마다 튀어나와 손을 흔들어주었다.

“아빠, 휴대폰 좀 주실래요?”

툴게이트를 지날 무렵, 둘째아이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녀석에게 내 스마트폰을 넘겨주었다. 건네받는 녀석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창밖에는 무르익은 봄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계절의 여왕을 맞이하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5월이다. 그래, 다시 시작해야겠다. **AF**



소화기내시경에 대한 이해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 건강검진사업을 젊은 장병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급과 연령에 구분 없이 군 장병들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죠.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한 싱그러운 5월. 아마도 공군 곳곳에서는 상병진급 캠프 검진을 포함한 공군식구들의 건강검진이 한창일 겁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은 다양하며, 최근 공군에서도 내시경 등의 세분화된 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시경검사는 초기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완치할 수 있어, 건강검진 시 꼭 받아야 할 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은 건강검진의 필수코스인 소화기내시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내시경의 필요성

주변에서 위염, 위궤양 등의 소화기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화기계통의 암발생률이 높기 때문이죠. 더욱이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이러한 질환을 앓는 환자수가 늘고 있다고 하니,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 중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남성의 경우 첫 번째

로, 여성의 경우 두 번째로 발생하는 암입니다. 식도암도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습관 상,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동시에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대장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장암은 증상이 없거나, 조그만 크기의 용종으로부터 시작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기내시경을 통해 조기발견 할 수 있죠. 더구나 완치율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와 대상자

위내시경은 구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 식도·위·십이지장 등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아주 작은 초기 병변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정확한 검사죠. 대개 입안과 목젖 부위의 국소마취하에 시행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5분에서 10분 이내의 검사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사 시, 진료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헬리코박터 검사나 조직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 궤양, 바렛 식도, 위십이지장 용종, 위암 등이 있습니다.

〈위내시경이 필요한 경우〉

-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남성 40세, 여성 45세 이상의 분들은 1년에 1회
- 상복부 불편감 혹은 통증, 신트림, 공복시 복통, 속쓰림이 있을 때
- 체중감소, 현기증, 흑색변이나 혈변, 토혈 등이 있을 때
- 과거 위궤양을 앓았거나 현재 이로 인하여 치료 중일 때
- 과거 위암이나 궤양, 기타 위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국가 암검진사업부에서는 40대 이후부터 2년 주기의 내시경 검사를 권유합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국내의 높은 위암빈도를 고려해,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속쓰림, 식후 상복부 불편감, 흉부통증,

소화불량, 식도의 이물감, 연하곤란 등 위장 증세가 있거나, 원인 모를 빈혈,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경우〉

- 하복부의 통증 및 만성적인 설사 또는 잦은 변비 증상
- 배변 횟수를 포함한 배변습관의 변화
- 혈변 및 원인 불명의 빈혈
-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식후 불편감이 커지는 경우
- 대장 용종 제거의 병력을 가진 경우
- 가족성 대장질환을 가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와 대상자

대장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 대장 내부 및 소장 말단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달린 지름 1cm 정도 되는 긴 관을 항문을 통해 진입시켜, 약 150cm의 구불구불한 대장직장을 관찰하죠. 대장내시경은 보통 수면마취 하에 검사해 통증이 없습니다. 검사 시간은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평균 20~40분 정도 걸립니다.

대장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장용종이며, 그 외 대장암, 대장계실, 궤양성대장염, 크론씨 질환, 결핵성 장염, 세균성 장염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암검진사업부에서는 50세가 되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분은 3~5년 후에, 용종을 절제한 분은 1~3년 후에 재검사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40대에서도 대장용종이 발견되는 확률이 40%가 되니,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30세 때부터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끝맺으며

우리는 건강검진의 소중함은 잘 알면서도, 막상 시간을 투자해 검사를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내시경 등의 전문 검사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기진단으로 더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여, 내시경 검사에 수반되는 통증 및 불안감으로 이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면내시경 검사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면내시경은 환자의 불안감과 통증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세를 고정시켜 더욱 자세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해 공군식구들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검진을 받으며, 평소에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폈으면 합니다. **AF**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가족

5월입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은 5월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겠지요? 5월에는 어린이날과 아버지날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계절도 계절인지라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군 입대와 동시에 가족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기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중국 명나라 말기 홍응명(洪應明)의 어록인 「채근담」에는 '봄바람이 언 것을 풀어주고, 화기(和氣)가 얼음을 녹이듯이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규범'이라 하였고, 주자학의 창시자인 주희(朱熹)는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헤어진 뒤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국심이 뿌리박고 있다'고 하였으며, 「대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펄벅(Pearl S. Buck) 여사는 '가족은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결정하고 이끄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아 왔으며, 우리에게 있어 몸과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

면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가족만큼은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경우 더욱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어쩌면 믿음이 크기에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심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다툼, 미움, 시기, 상처 등은 언젠가 반드시 치유해야 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커다란 응어리로 남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 관련 서적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족」(정일근 저, 문학의 전당, 2004), 「가족의 두 얼굴-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 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테라피」(최광현 저, 부키, 2012),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한기연 저, 씨네21북스, 2012)는 가족 내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과 나의 관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셨거나, 지금 이 순간 가족과 어떠한 유형이든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가족에게 한 발짝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마 가정의 달 5월에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가족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AF**

2012 May

Vol.407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군 가족그리고 사랑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5.1~2013.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2
May

Vol.407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5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5월호
퀴즈 정답

1.

2.

3.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5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5월 31일까지

1. OODA Loop 이론을 만들고 F-15 · F-16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항공전략사상가는?
2. 바그다드 남동쪽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농장으로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후세인의 은신처로 지목됐던 이 농장은?
3. 영화 <허거 게임>에 등장하는 독재국가로 라틴어 표현 'panem et circenses'에서 명명된 이 국가는?

3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윌리엄 빌리 미첼 2. 제스민 혁명 3. 장미의 기사

퀴즈 당첨자 대구 달서구 **박지현** ● 경남 거제시 **박정민** ● 강원 원주시 **이재원**
경남 양산시 **박철인** ● 제주 제주시 **윤문수** ● 경남 거창군 **최동술**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